

하루만에 읽는 중세교회사

기독교복음사역원

메시지사역장 손 영

1. 교황 그레고리오1세
2. 잉글랜드 복음화의 선구자, 성 어거스틴
3. 카롤루스 대제
4.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 차이점
5. 교황 그레고리오7세 힐데브란트와 로마황제 헨리4세
6. 수도원의 개혁운동, 클루니 수도원, 시터 수도원
7. 십자군운동
8. 스콜라철학, 실재론과 유명론
9. 안셀무스(안셀름), 속죄론
10. 토마스 아퀴나스, 구원론
11. 보나벤투라
12. 중세대학, 볼로냐대학교, 파리대학교
13. 신비주의운동
14. 종교개혁을 향한 회의 : 피사회의, 콘스탄스회의, 바젤회의
15. 르네상스 문예부흥
16. 종교개혁
17. 마틴루터
18. 마틴루터의 종교개혁 3대논문
19. 로마카톨릭의 개혁운동:예수회, 트렌드회의, 종교재판
20. 존 칼빈
21. 재세례파운동
22. 프랑스의 종교개혁운동
23. 네덜란드(화란)의 종교개혁운동
24.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운동
25.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운동

1. 교황 그레고리오1세(Papa Gregorius)

540년:이탈리아 동고트 로마에서 로마귀족의 원로원 가문 출신으로 부친,고르디아누스와 모친 실비아 사이에서 출생(동생1명이 있으나 전해지는바 없음)

573년:로마시장(Praefectus urbi)

574년:성 안드레 수도원 수도사 생활

578년:콘스탄티노폴리스 특사

579~585년:로마교황 사절

586년:성 안드레 수도원 원장, 교황청 교황비서역

590년09월03일~604년03월12일:64대 로마교황, 대교황(Gregorius Magnus), "하나님의 종들의 종"(Servus servorum Dei)을 교황의 공식명칭으로 사용

그레고리오선교:잉글랜드 앵글로색슨족선교, 네덜란드 선교, 독일 선교 등 각국 선교사 파견

597년:잉글랜드에 선교사 파견

수도생활을 체험한 최초의 교황, 라틴교부의 마지막 교부, 교회학자, 기독교 전례의 아버지

저서:요기주해(Magna Moralia,591), 사목규범(Liber Regula Pastoralis,591), 이탈리아 수사들의 대화록2권, 성 베네딕토의 생애2권(Dialogues), 4대복음서강론(Homiliae xl in Evangelia,593), 아가서강론(Expositio in Canticis Cantorum), 열왕기 상권 주해(In Librum primum regum expositio),그레고리오의 서신854편

604년03월12일:선종

604년:성인으로 시성

(1) 그레고리오(Sanctus Gregorius Magnus)의 생애와 신앙

그레고리오는 주후 540년 동로마 동고트 첼리오 언덕의 대저택(Villa suburbana)에서 로마귀족의 원로원 가문 출신으로 부친,고르디아누스와 모친 실비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레고리오라는 이름은 "파수하다", "지키다"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로 그는 고조부인 교황 펠릭스 3세에 이어 두번째로 선출됨으로서 카톨릭의 명문가문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는 이탈리아의 격변기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두살 되던 해인 542년, 동로마제국에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이탈리아에 까지 전염됨으로서 국가적으로 기근과 공포가 만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3분의 1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정치 사회적인 혼란까지 가중되어 국민적 충격이 매우 컸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540년대의 이탈리아는 서로마제국의 멸망으로 고트족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으나 동로마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 로마제국의 영토로 복속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지역에 살았던 그레고리오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는 않았지만 부친의 정계은퇴로 시칠리아와 로마를 오가는 등 554년 로마가 평화를 회복까지 까지 정치적 격변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레고리오는 고등교육을 수학하였으며 문법, 변증법, 수사학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라틴어 전문가로서 라틴문학, 자연과학, 역사, 수학, 음악과 제국법에 능통함으로서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한 예술의 영역까지 그는 천재적인 학문적 소양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소양과 부친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570년에는 로마의 재정과 방어, 보급과 행정 등을 주관하는 로마 시장(로마지사, Praefectus urbi)의 지위에 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오는 로마와 게르만계, 동방과 서방, 그리고 고대와 중세의 경계선에 위치한 인물로 평가 받음으로서 중세교회사의 출발점에 관련한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하였습니다.

유년시절 그레고리오는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 실비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우 열성적이었으며 특히, 부친인 고르디아누스가 사망한 후로는 첼리오 언덕에 위치한 자신의 대저택을 수도원으로 개축하여 성 안드레아 사도를 기념하는 수도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는 수도 생활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수사가 된 그레고리오는 관상생활과 관상기도에 심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란 의미로 관상 또는 높은 차원의 묵상은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고요함으로 마음까지 침묵에 이르는 상태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의 수도사관은 "우리 창조주만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집중하여 추구하는 것"이라고 전할 만큼 묵상과 성경공부에 힘을 쏟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라틴교부들의 문헌과 고행에 심취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는 수도사 시절, 그와 함께 수양중이던 수도사가 임종을 앞두고 생전에 금화 3개를 훔친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때에 그레고리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그 수도사의 임종을 고독사로 마감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정죄함으로서 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레고리오는 연옥에 있을 수사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의 보속을 모두 갚아 천국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서른대의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연옥은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단계의 상태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여 죽음에 이른자들에 일정기간 동안 치리를 받는 것으로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있으나 기독교에선 이단사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후 교황 펠라지오 2세는 그레고리오를 부제(기독교의 성직자 또는 안수집사)로 서품하고 이탈리아 북부교구들의 갈등해결의 책임자로 맡겼고, 578년에는 롬바르드족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군사원조를 요청하기 위한 콘스탄티노폴리스 사절단에 임명하였습니다. 이듬해인 579년에는 동로마 제국의 교황사절로 임명하는 등 교황청으로부터 신임을 받으며 활동하였으나 펠라지오 2세가 지시한 목표들 가운데 어느 것 한가지도 뚜렷하게 달성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레고리오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궁정의 상류층을 중심으로 인맥을 확대해 나가는 한 편, 도시지역의 상류층과 귀족 여성들로 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그들의 영적 스승으로 자리매김하여 나갔습니다. 그레고리오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인 에우티키우스와 유명한 논쟁을 벌여 승리하였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 이후에도 여전히 손으로 직접 만질수 있는 상태의 존재가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시 이 논쟁은 티베리우스 2세가 에우티키우스의 이론서들을 불태우라는 지시가 있기 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그레고리오는 그가 설립한 성 안드레 수도원의 원장으로 돌아갔으나 590년 로마 전역에 퍼진 전염병으로 인하여 펠라지오 2세 교황이 선종하자 그의 후임자로 만장일치 추대되면서 590년 9월3일 제 64대 교황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가 수도원의 원장으로 되돌아 간것은 세상의 여러가지 송사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았고, 또한 교황이 되면 교황직의 업무 중압감으로 인하여 관상기도와 성경묵상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것을 우려하여 기피한 사유도 있었으나 오히려 이러한 순수한 모습이 그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게 하는 근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황에 취임한 그레고리오는 전염병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로마시민들을 위로하고 성 베드로대성전에서 로마황제 하드리아누스의 영묘에 이르는 행로를 이어가며 3일간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순례의 기도가 마칠때쯤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 하드리아누스의 묘위에서 칼을 들고 맴도는 환상을 그레고리오가 본 후 전염병이 종료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레고리오 1세는 하드리아누스 영묘에 미가엘 청동천사상을 세워 후대에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 1세는 당시 서방지역에 위치한 주교들의 출신성분이 모두 지역의 대지주 가문에서 나와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황 펠라시오 1세부터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급기야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는 스스로를 "세계 총대주교"라 칭하여 카톨릭의 지배구조를 이원화 하려하였습니다. 이에 그레고리오 1세는 칙서를 통하여 교황을 "하나님의 종들의 종"(Servus servorum

Dei)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교황권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좌는 모든 교회의 수장(首長)으로 전체 교회의 관심과 수위권이 베드로의 후계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교황은 신앙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각 주교는 지역의 사목권을 유지하지만 교황의 권한 위임으로 예속되어 있으며 총대주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레고리오 1세의 교황권은 교회를 물리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직분으로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종"(Servus servorum Dei)이라는 칭호는 교황의 공식적인 칭호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1세는 로마시내 광장 노예시장에서 잉글랜드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매매되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북유럽지역의 비기독교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잉글랜드의 앵글로색슨족 복음화에 주력하였는데 이것을 그레고리오 선교라고 칭하였습니다 597년, 그레고리오 1세는 잉글랜드에 선교사를 파견하였으며, 켄터베리의 아우구스티노와 동료 수사 40명은 잉글랜드 교회의 창시자들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복음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켄터베리 교구를 수좌교구로 2개의 대교구와 12교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레고리오 1세는 네덜란드와 독일에 도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 지역의 국가에 기독교가 정착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 1세의 선교전략은 토착신앙을 제거하고 미신과 우상숭배를 타파함으로써 토착민의 정신적 원리의 근본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앞세웠습니다 즉, 그들이 믿는 토테미즘과 미신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어떤 것을 주었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논쟁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들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레고리오 1세는 이전에 없었던 성당내 조각상과 성화 등과 같은 예술품을 신앙에 도움이 되고 성경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는 이유로 지지하고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후대 성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근거가 되었으며, 그레고리오 1세의 칙령을 기초로 많은 조각상과 그림들이 성당내에 게시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경배의 도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미사의 많은 요소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 1세는 "로마 미사전문"이 끝난 후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빵나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오늘날의 미사에 까지 변함없이 지속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로마 미사 전문"에는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Hanc igitur)라는 구절을 첨부하고, 미사 시작시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Kyrie eleison),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Christe eleison),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Kyrie eleison)를 각각 세번씩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그레고리오 1세에 의해 개혁된 성사 예식들을 '그레고리오 성사'(Sacramentaria Gregorian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들의 전례 양식과 축일, 전례력이 각각 변경되어 수많은 기도 문들이 만들어 졌고 "로마 미사전문"과 본기도와 감사송도 여러가지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레고리오 1세는 중세의 교황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중세 영성의 출발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라틴교부의 마지막 교부라고도 불리워 지고 있으며, 대교황이라는 칭호와 함께 선종 이후에는 즉시 성인으로 시성될 만큼 국민적 존경과 존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많은 교황들보다 많은 저서를 남겼고 그 저서를 통하여 "기독교 전례의 아버지"라고 불리워 지고 있습니다

(2) 성례론(聖禮, Sacrament)

성례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도 모세가 결례(레위기14:1,9)를 행한 바가 있고, 신약성경에서도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요한복음1:33)를 준 사례가 있으나 예수님의 세례는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마태복음28:19)를 주라고 명함으로서 이전의 세례와는 개념이 다른 차원의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성찬예식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하루전날 떡과 포도주를 가지사 자신을 속제의 희생물로 드릴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우신 예식이었습니다(마태복음26:26~29)

그러나 그레고리오의 성례의식은 기독교의 세례와 같은 의미의 "영세"(성세성사, 聖洗聖事,Baptism)와 성찬예식과 의미가 같은 "성체성사"(聖體聖事,Eucharist)외에도 5가지가 추가 되었습니다 즉, 세례를 베푼 후에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성례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론이 교리화한 "견진성사"(堅振聖事,Confirmation)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도가 범한 죄를 사제의 권위로 사해주는 "고해성사(고백성사, 告白聖事,Penance)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여간의 혼인과 관련된 예식으로 "결혼성사"(혼인성사,婚姻聖事,Matrimony)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결혼은 반드시 남여간에 이루어져야만 하며, 둘째, 남여 모두 결혼전 순결한 관계가 되어야 하며, 셋째, 남여가 모두 신앙인이어야 하며, 넷째 이 성사는 사제 앞에서 거행되어야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회의 사제로 성사와 미사집전, 교회봉사직 임명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교회의 모든 직무는 거룩하므로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예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신품성사"(神品聖事,Ordination)로 성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에게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와 신앙을 확인하는 것으로 "병자성사"(종부성사,終傳聖事,anointing of the sick)가 행하여 짐으로 일생동안 7번의 성례가 주어집니다

그레고리오 1세는 성례론을 시행함에 있어서 모든 신앙의 행위를 말씀보다 예식 위주의 사제주의 경향에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연옥설을 받아 들이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연옥은 경미한 죄는 심판대 앞에 서기전에 연옥의 불로 정화하고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터무니 없는 이론에 심취됨으로서 중세기독교 사상에 많은 공헌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2. 잉글랜드 복음화의 선구자, 성 어거스틴(St. Augustine)

출생:?

587년:그레고리오 교황 1세가 운영하던 안드레 수도원 원장겸 수사

590년:30여명의 동료 수사와 함께 그레고리오 교황1세의 친서를 가지고 잉글랜드 선교사로 파송

591년:성 마틴교회를 설립후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여왕을 중심으로 복음전파

597년:잉글랜드 켄트(King,Kent)왕 에설버트 1세(Ethelbert)에게 세례집전 후 잉글랜드를 기독교화, 잉글랜드 주교로 축성

601년:로마교황청에서 유스투스, 멜리투스, 파울리누스, 그레고리우스 선교사를 잉글랜드에 파송 동역하게 함

잉글랜드 수석대교구, 12명의 부주교를 축성함

604:런던교구, 로체스터교구 설립 멜리투스를 런던교구 주교로, 유스투스를 로체스터 교구 주교로 축성

잉글랜드 대감독

사망:?

여기에 나오는 어거스틴은 서방교회의 4대교부로서 세계 기독교사에 빛나는 성 어거스틴(Sanctus Aurelius Augustinus354~430)과는 구별되는 잉글랜드 선교의 선구자 중 한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영국 남부지역 선교의 선구자이며 대명사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를 기독교 국가로 세워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서 영국교회사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레고리오 교황1세가 소유하던 베네딕트파 안드레 수도원의 원장으로 590년 30여명의 수도사들과 함께 잉글랜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잉글랜드 사회는 우상숭배와 노예제도가 성행하여 있었으며 어거스틴이 방문한 지역 역시 이와같은 미신들이 성행하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켄트왕 에설버트 1세의 아내였던 여왕이 영국 북부지역 켈트교회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를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591년, 영국 남부지역 잉글랜드의 켄트베리에 도착한 어거스틴은 자신의 숙소를 개조하고 마틴교회를 설립하였으며 본격적인 개종활동을 하였는데 특히 지역토착민들의 우상숭배와 배교행위들에 대한 타파와 혁신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왕실 사회의 기독교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597년, 어거스틴은 잉글랜드에 입성한지 8년만에 잉글랜드의 주교로 축성 되었으며 켄트왕 에설버트 1세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서 잉글랜드 남부사회는 빠른 속도로 기독교화 하여 갔습니다

이에 힘입어 601년에는 로마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잉글랜드의 복음화를 보다 적극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본국에서 유스투스, 멜리투스, 파울리누스, 그레고리우스 선교사를 잉글랜드에 파송하여 동역하게 되었고 이로서 어거스틴은 잉글랜드의 수석대교구로서 그 아래 12개의 부주교를 축성하게 되었습니다

604년에는 런던교구와 로체스터교구를 설립하고 멜리투스를 런던교구 주교로, 유스투스를 로체스터 교구 주교로 축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잉글랜드 국민은 로마 교황청에 충성을 맹세하고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교회들이 로마 교황청에 귀속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잉글랜드의 대감독이 되었고 그가 집례하였던 성 바울수도원과 베드로 수도원은 사후에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개명되었으며 이것은 유럽전역에 걸쳐 두번째의 베네딕트 수도회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사후, 캔터베리 대주교(Archbishop of Canterbury)는 "영국 성공회"(the Church of England)의 최고위 성직자이며, 세계 성공회(the Anglican Communion)의 영적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 캔터베리 주교는 자동적이며 상징적으로 세계 성공회(the Anglican Communion)의 영적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성공회의 관구장 주교 및 교구장 주교들과 "동등한 관계 안에 있는 수장"(primus inter pares)일 뿐, 다른 관구나 교구에 치리 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직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로마교황청의 교황직과는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두 개의 주교좌에 앉게 됩니다 하나는 캔터베리 교구의 교구장 주교로서 앉는 의자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All England)의 관구장 주교(primate)로서 캔터베리의 성 어거스틴(St. Augustine of Canterbury) 의자입니다 캔터베리의 성 어거스틴은 영국 교회의 최초 주교이며, 이 자리는 세계 성공회의 영적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임 사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캔터베리 복음서를 신임 대주교에게 건네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신의를 서약합니다 이 복음서는 597년 성 어거스틴이 로마 교황으로 부터 잉글랜드로 가져 온 것이었습니다

영국교회의 영적 지주인 어거스틴은 그가 소천한 후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영국의 기독교 정신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임종하였을 때 켄트왕은 그의 묘비명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어거스틴이 잠들어 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잉글랜드를 우상숭배로 부터 구원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신앙을 국가적으로 신앙하게 한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

영국의 복음화는 유럽의 복음화와 연결되어 있고 미주지역의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로 파송되어 그의 숙소를 개조하여 만

들었던 최초의 교회 마틴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복음은 오늘날 세계복음화의 단초가 되었다고 할 만큼 위대한 신앙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였습니다 잉글랜드 성공회의 오랜 전통과 변화속에서도 어거스틴이 앉았던 좌석을 전승해 오면서 그의 업적과 신앙적 모범은 여전히 살아 있게 되었습니다

3. 카롤루스 대제(Carolus Magnus)

740년4월2일:벨기에 리에주 인근 프랑크왕국 왈롱나 주 에르스탈에서 피핀 3세와 레온 출신 베르타의 장남으로 출생

751년:부친 피핀3세는 자카리아의 승인으로 메로빙거왕조 군주 힐데리히 3세를 폐위하고 프랑크회의에 의해 왕이 되었으며 이 과정을 유년기에 목격

754년:교황 스파르타 2세는 롬바르드족의 공격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알프스를 넘어 프랑크 왕국을 방문할때 카롤루스는 피핀3세 국왕의 장자 자격으로 교황을 영접,

스파르타 2세는 피핀3세와 아들, 카롤루스, 카를로만에게 왕호 수여

부왕 생전 귀족가의 딸 이멜트루다와 결혼했으나 그가 기형아인 곱사등이 피핀을 낳자 랑고바르트왕국의 왕 데시데리우스의 차녀 기셀라와 재혼

768년9월24일:왕위계승, 아우스트라시아와 북부지역을 승계하고 프랑크왕국의 왕 (Rex Francoem) 취임

769년:부친, 피핀3세와 함께 카롤루스는 롬바르드족을 축출하고 아키텐에서 피레네 산맥까지 영토를 확장

771년:데시데리우스가 동생 카를로만 2세의 왕위경쟁에서 동생 카를로만의 손을 들어주자 카롤루스는 데시데리아를 폐하고, 히스파니아 백작의 딸 힐데가르트와 재혼 동생 카를로만 2세의 사망으로 부르군트,프로방스,네우스트리아를 병합하여 단일 통치자가 됨

랑고바르트왕국과 이탈리아 점령후 이탈리아 일부를 교황에게 기증

772년:작센족 정벌

774년:교황 스파르타 2세의 청으로 북이탈리아 랑고바르트 왕국 멸망후 합병

777~778년:사라센 토벌, 이베리아반도 원정참패

794년:독일 남서부의 아헨에 궁정과 왕실교회 설립, 수도로 사용

800년:교황 레오3세로 부터 카롤대제 칭호 수여, "유럽의 아버지"로 칭호

801년:바르셀로나 함락

802년:사라센 족 토벌, 북이탈리아의 롬바르드왕국 정복, 스페인 국경 변경령설치, 바이에른, 케른텐 병합, 아바르족,벤드족 정복, 서유럽지역 통일달성

814년1월28일:사망

카롤루스 대제(Carolus Magnus)는 740년 4월2일, 벨기에 리에주 인근 프랑크 왕국 왈롱나 주 에르스탈에서 프랑크왕 피핀 3세와 레온 출신 베르타사이에서 왕자로 출생하였습니다 카롤루스는 유년기부터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영토확장에 대한 의지도 누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754년, 교황 스파르타 2세는 롬바르드족의 공격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알프스국경을 넘어 프랑크 왕국을 방문하였을때 카롤루스는 국왕의 태자 자격으로 교황을 직접 영접하였습니다 교황 스파르타 2세는

피핀3세와 장자인 카롤루스와 차남인 카를로만에게 왕호를 수여했고 롬바르드족의 정벌을 위해 피핀3세 왕은 전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760년부터 아키텐과 피레네 산맥까지 진출한 원정에는 항상 카롤루스가 동행하였고 그의 정벌전은 계획대로 성사되어 갔습니다

카롤루스는 이멜트루다와 결혼하였으나 기형아를 출산하자 랑고바르트 왕국 데시데리우스 왕의 차녀 기셀라와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나 771년 데시데리우스가 자신과 동생과의 왕위경쟁에서 동생을 지지하자 카롤루스는 기셀라를 폐위시키고, 히스파니아 백작의 딸 힐 데가르트와 재혼하는 등 네 명의 부인과 다섯명의 첩을 두는 등 여러번의 결혼을 거듭하였습니다 768년 9월24일 피핀3세가 임종하자 카롤루스는 아우스트라시아, 북부지역을 통합하여 왕위를 계승하였고 동생인 카이저 소제 2세는 부르군트,프로방스,네우스트리아 지역을 상속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후인 771년, 동생 카를로만 2세의 사망으로 부르군트,프로방스,네우스트리아를 병합하여 카롤루스는 프랑크왕국의 단일 통치자가 되었으며 이탈리아 점령후 일부를 교황 스파르타 2세의 영토로 기증하였습니다

772년, 작센을 정벌하고, 774년에는 교황 스파르타 2세의 요청으로 북이탈리아 랑고바르트왕국을 멸망시키고 합병하였습니다 801년에는 바르셀로나를, 802년에는 사라센 족을 병합하고, 스페인 국경에 변경령을 설치하였으며, 바이에른과 케르텐을 병합하고 아바르족과 벤드족을 정복하는 등 서유럽 전역에 걸쳐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803년, 판노니아외부지역의 크로아티아부족을 병합하고 자치권을 주었으며, 813년 경건왕 루트비히 1세를 후계자로 지명한 후 814년 1월28일 아헨에서 늑막염과 우울증 등 오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68년9월24일, 카롤루스가 왕위를 계승하고 아우스트라시아와 북부지역을 승계하며 프랑크왕국의 왕(Rex Francoeum)에 취임한 이후 794년, 독일 남서부의 아헨에 궁정과 왕실교회를 설립하여 수도로 사용하였습니다 800년, 교황 레오 3세는 카를 대제 칭호를 수여, "유럽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카롤루스는 그가 점령하는 지역에서 우상숭배와 토착신앙을 파괴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카톨릭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교회와 학교와 수도원을 설립하고 전도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카롤루스의 선교활동은 전쟁을 통하여 지역을 점령해감으로서 이루어 졌으며 때로는 무참한 살인과 폭력을 동반하여 진행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점령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바로 세례식을 거행하였으며 정신적개조학습은 세례를 베푼후 진행하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카롤루스는 노섬브리아왕국 요크 출신의 잉글랜드 스콜라철학자이자 교회학자인 알

퀸(Alcuin, 730년대 또는 740년대 ~ 804년 5월 9일)을 스승으로 섬기며 카롤링거법정의 교수와 성 마르당 수도원 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알퀸은 신학교리를 세우고 교회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십일조 헌금제도를 시행하여 교회의 재정을 굳건히 하는데 초석을 이루었습니다. 알퀸과 함께 롬바르디아의 라바누스, 마우루스, 아인하르트 등 당대의 신학자들을 초빙하여 교회 신부들의 신학저술과 고대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는 왕실도서관을 설립하고 궁정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

카롤루스는 올바른 신앙관념과 도덕성을 중시하여 모든 수도원학교와 카톨릭학교를 통해 라틴어와 라틴문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으며 각 지방의 통치 또한 종교적 영향력이 강한 주교와 백작과 후작에게 통치권을 일임하여 신앙관 중심으로 지방편제가 구성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왕의 사절단에도 고위관리와 고위성직자를 반드시 함께 보내었으며 이러한 관례를 통하여 로마제국이 신앙적 결속력하에 관리되도록 육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롤루스는 다양한 민족과 부족의 전통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한편, 프랑크왕국의 법령집을 기록하여 많은 부족들을 원활하게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늑막염과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아헨으로 은퇴하여 여생을 보내는 가운데 814년 1월 28일 아헨의 성당에 묻히며 그의 생애는 마감되었습니다.

4.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리고 그 차이점

(1) 동방교회(Ορθόδοξη Εκκλησία, The Orthodox Church)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누폴리스 총대주교좌를 중심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교회는 초대교회로 부터 계승된 정통기독교라는 의미로 정교회, 동방교회, 동방정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동유럽 그리스, 불가리아, 폴란드, 러시아, 체코 등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며 희랍정교회 또는 헬라정교회라고도 불리워지는 것은 신학사상과 교리가 희랍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어서 칭하는 것입니다.

1세기 초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교구를 시작으로 안디옥교구, 알렉산드리아교구, 콘스탄티노플교구, 로마교구 등 5개교구를 중심으로 상호협력하며 하나의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례가 4세기 이후 서로마제국의 멸망과 함께 로마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한 이후, 제 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4개교구가 로마대교구로 부터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8세기 성상숭배 금지령 문제와 9세기 포티우스 분쟁으로 로마교구의 영향력은 급감하였고, 1054년, 케룰라리오스(Cerularius)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와 로마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는 실질적인 분리단계에 있었으며, 1204년 제4차 십자군 원정에서 로마교회 소속 군대가 동방교회 국가의 성당과 제단의 성물까지 약탈과 방화하는 사건으로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15세기 피렌체 공의회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일부 합의가 있었으나 동방교회 평신도들이 강하게 거부하는 가운데 비잔틴제국 패망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영구적으로 동서교회가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동방교회는 교황청을 절대중심으로 하는 로마카톨릭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는 연합체 조직으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명예상 세계총대주교로 추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로마제국시대에는 그리스정교회가 중심이었으며 1453년 동로마제국이 오스만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는 러시아정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루지야, 마케도니아, 키프로스 등의 국가에 퍼져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를 통한 사도전승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 즉 정교회는 성경과 7회의 공의회를 통해 확립된 교회규범(Canon)을 포

함하는 거룩한 전승(Sacred Tradition)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하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325년, 제1차 니케아공의회에서 확정된 삼위일체를 신학의 기초로 삼았으나 381년 콘스탄티노플공의회에서 로마카톨릭교회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Filioque) '발(proceeds)'한다"고 한 반면 동방 정교회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한다"라고 하여 대립하였습니다

동방정교회의 성사는 로마카톨릭과 마찬가지로 세례, 견진, 결혼, 고해, 신품, 성유, 성체성혈 등 7대성사를 집전합니다 그러나 로마카톨릭교회가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동방정교회는 "성체성혈성사"를 함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로마카톨릭의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은 동방정교회 역시 삼위일체에 따른 "주님의 어머니"로서 성모마리아를 "테오토코스"(Θεοτόκος, Deipara, 신성神性출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의 성직 또한 로마카톨릭교회와 동일하게 주교, 사제, 보제(부제)로 구분하며 주교외에는 결혼이 가능함으로서 로마카톨릭과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성모마리아 안식축일 또한 로마카톨릭과 동일하게 8월15일을 축일로 기념하고 있으나 성모승천에 대하여는 로마 카톨릭과 달리 교리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룩한 전승으로 여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독교와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죄없는 성령의 잉태와 관련해서도 로마카톨릭은 예수님의 죄없음을 정론으로 하지만 동방정교회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함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평생동정녀론도 로마카톨릭과 동일하게 교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서방교회(로마카톨릭교회, Ecclesia Catholica Romana)

서방교회(西方基督教, Western Christianity)는 라틴식 전례를 따르는 로마카톨릭교회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분리된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등을 총칭해서 부르는 것으로 1세기초 로마대교구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교구, 안디옥교구, 알렉산드리아교구, 콘스탄티노플교구 등 5개 교구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그 가운데 로마교구를 제외한 4개 교구가 로마교구에서 분리되어 동방교회로 불리워지고 로마교구는 서방교회라고 불리워진 것입니다

1세기, 교회의 공동체는 유대인 집단 거주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헤드린공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새로운 분파로 이해되었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한 문제로 유대교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제국이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교회를 파괴함과 동시에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더 이상 기독교의 중심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이

59~61년 경계에 로마에 도착했을때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로서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지로 형성되었는데 정확한 근거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64년 7월19일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고 네로황제는 화재의 원인이 자신에게로 돌아오자 기독교인들을 화재 방화범으로 몰아 4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박해와 화형으로 처형을 하였으며 이 기간중에 사도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 박해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도화선이 되어 기독교의 전파속도는 급속히 증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해와 순교속에서 저항하였던 로마교회는 초기 교회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속에 신앙과 공동체 일치의 기준이 되었고 로마주교는 스승과 같은 위치와 자격으로 다른 지역교회와 공동체의 문제들에 교훈과 법적 가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100년까지에 이르는 1기를 중심으로 매우 공격적이었으며, 250년까지 이르는 2기에는 교회를 반인류적 반국가적 금지종교로 규정하고 교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어 박해가 정점에 이르렀고, 313년에 이르는 3기에는 로마제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무마하기위해 희생시킨 박해기였습니다 로마제국과 로마교회와의 대립각은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한다는 로마제국의 절대적 제국주의 사관과 개인과 국가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하는 로마교회의 신관으로 일치되는 지점이 없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312년, 콘스탄틴 대제는 당시 열세이었던 상황에서 이탈리아로 출정하여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쟁을 앞두고 콘스탄틴 대제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이 때 공중에서 빛나는 십자가와 함께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문구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콘스탄틴 대제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키(X)와 로(P)로 된 군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하여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전을 기점으로 하여 313년 콘스탄틴 대제는 밀라노에서 리키니우스와 회동하여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를 공인하였으며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기독교화의 발판을 구축하였습니다

밀라노칙령은 첫째,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둘째, 기독교인들이 박해시대에 몰수당하거나 이미 처분된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도록 강제명시한 것으로 로마교회가 세계교회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재정적 후원이 되었습니다 324년, 콘스탄틴 대제가 반교회적 정책으로 악명높은 리치니우스를 제거함으로써 기독교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당시 모든 국가적 조치에 기독교정신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380년 2월, 테오도시우스 1세는 '가톨릭 신앙에 대한 칙령'(De fide catholica)을 반

포함으로서 로마교회는 로마제국의 국가종교가 되었으며 이로서 기독교는 제국교회, 국가교회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제국의 국가교회로 성장한 로마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에서 특권의 교회로, 순교자의 교회에서 국가교회로 권력화 함으로서 부와 권력을 거머쥔 교회의 세속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부패를 거부한 쇄신파들이 사막으로 은거하거나 수도원 운동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교회는 로마제국의 영토확장과 함께 예루살렘교구, 안디옥교구, 알렉산드리아교구, 콘스탄티노플교구 등 4개 교구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상위개념의 교회가 되었으며 4세기 이후 10세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교구, 안디옥교구, 알렉산드리아교구, 콘스탄티노플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와 로마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가 분리되는 절차를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로마교회의 세계교구 통치는 로마제국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어 있었으며 4세기경 서로마제국의 멸망과 함께 로마교구가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하면서 영향력 또한 약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교회의 동방교회와의 분열은 교리상의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로마제국의 멸망과 영토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한 제국적 영향감소가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1204년 십자군 원정에서 빚어졌던 동방교회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약탈과 방화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인 로마교회가 완전히 분열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5세기 오스만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침략전쟁에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로마교황청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서유럽정세와 지역문제들로 로마교회가 동방교회를 지원할 여력이 부족하여 지원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국가인 오스만제국에게 함락됨으로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에 걸쳐 무려 200년동안 교황의 주도로 계속 되어진 8차례의 십자군원정은 초기 승리로 인한 교황권 신장과는 달리 십자군이 지속적으로 패하거나 4차원정과 같은 오류를 범함으로서 신앙의 순수성은 변질되고 엄청난 희생과 권력의 희생자로 전락하는 모순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영지들의 권력이 함께 무너지면서 봉건제도가 종료되고 왕권이 절대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로마교회의 부정과 부패, 도덕적 헤이도 갈수록 지나쳐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증가하였습니다.

15세기, 마틴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대학교의 교회 정문에 95개조항에 이르는 대자보를 게시함으로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으며 마틴루터 추종자들의 루터교회를 기점으로 쾰른과 장칼뱅의 장로교회 등 새로운 기독교가 로마교회로 부터 독립 출

현함으로서 로마교회의 세속화와 영향력 감소는 더욱 가속화 되어 갔습니다

16세기, 예수회를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교회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회 운동의 개혁적 성과는 영성생활지도, 선교지역의 전통을 존중하는 선교사역, 자선사업과 청소년 교육, 신학교설립과 연구를 통하여 로마카톨릭교회의 신앙회복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운동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등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지속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로마 카톨릭교회는 오늘날에 까지 이르게 되었고, 바티칸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교황청의 권한과 영향력은 여전히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3)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리와 차이점

207년경, 제 2차 터툴리안 총회(Trullian Synod)를 기점으로 동서교회 분열의 조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화논쟁(Iconoclastic Controversy)과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의 권위를 강조한 102권징 조문 문제로 로마교회(서방교회)는 우위성을 강조하며 맞서는 가운데 양측의 대립은 보다 심화되어 갔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포티우스(Photius,850~886)는 "헬라세계의 루터"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동방교회의 독립을 강화하는데 일생을 헌신하였습니다

동방교회 포티우스 대주교가 로마교황 니콜라스(Nicholas) 관할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서 양측이 파문을 선언하고, 이에 동방교회는 스스로를 정통교회라고 칭하고 서방교회를 정통성이 없는 교회로 지칭함으로서 양측의 분열은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로마교회는 이에 맞대응하여 동방교회와 의논없이 니케아신조에 "필리오케"(Filio Que)를 삽입함으로서 교리적으로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필리오케"(Filio Que)는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동방교회 또한 삼위일체를 신앙하고 있으나 "성자예수님"을 삭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869년, 콘스탄틴 공회에서 동서교회는 일시적으로 상호존중과 일치를 의결하였으나 그후 비잔틴 제국은 흥하는 반면 로마제국은 급격히 쇠퇴함으로서 로마교회의 동방교회에 대한 영향력도 급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스만제국의 침략으로 위험에 빠진 콘스탄틴 9세는 로마교황 레오 9세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로마의 사정 또한 여의치 않아 지원을 하지 못함으로서 양측의 감정은 골이 더욱 깊어 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1054년, 콘스탄티노플 미가엘 케룰라리오스(Michael Cerularius,1043~1058)대주교는 서방교회로 부터 완전독립하여 세계총대주교로서의 권한을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8세기 성상숭배 금지령과 9세기 포티우스 분쟁으로 촉발된 동서교회의 분열은

1054년, 케룰라리오스(Cerularius)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안디옥,알렉산드리아,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와 로마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는 실질적으로 완전 분리되었습니다. 1204년 제4차 십자군 원정에서 로마교회 소속군대가 동방교회 국가의 성당과 제단의 성물까지 약탈과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그동안 화해와 일치를 위한 훔버트(Humbert) 등 여러가지 사절단의 왕래도 무산으로 돌아가는 등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리된 양 교회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으며, 동방교회는 정교회로, 서방교회는 로마카톨릭을 중심으로 기독교,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등 여러가지 교단과 교파와 교회로 분열되어 갔습니다.

5. 교황 그레고리오 7세(Gregorius VII), 힐데브란트(Hildebrand)와 로마 황제 헨리 4세(Henry IV)의 관계

교황 그레고리오 7세(Gregorius VII)의 연대기

1,020년:힐데브란트, 이탈리아 소바나 출생

로마수도원 수료, 교황청 직원,

1,046년:교황 그레고리오 6세 독일피난시 동행, 쾰른 수학, 클뤼니수도원 생활

1,048년:교황 그레고리오 9세,부제 서품, 교황청 재무담당관, 성바로 대성당 수도원 원장

1,054년:교황청사절, 성체성사의 이단자 베렌가리우스 사건담당

1,059년:교황선거령의 재정에 직접 관여

1,073년4월22일:그레고리오 7세 제157대 교황에 취임

1,075년:사순절 로마회의에서 세속인이 서임을 엄격하게 규제 교구점류의 권리를 황제로 부터 이양할 것을 통보, 황제 하인리히 4세의 거부

1,076년1월:황제 하인리히 4세, 보름스 교회회의 소집, 주교 26명의 서명으로 교황 반대운동 주도 그레고리오 7세 폐위 결정

1,076년:사순절 로마회의에서 하인리히 4세파문, 권한정지, 주교26명 파문 및 성무정지령

1,084년:하인리히 4세 로마교황청 공격하여 그레고리오 7세 살레르노로 피신하여 노르만족의 보호

1,085년5월29일:이탈리아 살레르노 선종

1020년, 힐데브란트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소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수도원에서 성직 교육을 받고 1046년 교황 그레고리오 6세가 독일로 피난할 당시 동행하였습니다 1048년,주교 브루노가 교황레오 9세가 되었을때에도 로마로 동행하여 교황청의 업무를 담당하여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 받았습니다 이 일로 교황 레오 9세는 힐데브란트를 부제로 서품하고 교황청의 재무담당관과 성 바로 대성당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1054년 교황청 사절로 투르의 지방 공의회를 주관하여 성체성사의 이단자 베렌가리우스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1058년 교황 니콜라오 2세와 1061년 교황 알렉산데르 2세의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교황청에서의 특별한 신임을 토대로 1073년 4월22일, 힐데브란트는 만장일치로 157대 교황에 선출되어 성 베드로와 성 바울 축일에 그레고리오 7세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는 집권 초창기, 동방정교회와의 분열과 중동 셀주크 투르크의 수니

파 무슬림왕조를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 십자군의 모집에 관심이 있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전례를 에스파니아에 보급하여 모자라빅전례에 대체시키고 전례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는 고위성직자들의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그들의 정화된 사생활을 강조하여 성직매매, 사제의 결혼, 평신도의 임직권을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당시 물질적 탐욕과 타락한 사생활로 인한 성직자에 대한 우려를 법으로 제정하였고, 1075년 지방 공의회는 성직매매와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신성로마제국에서 그레고리오 7세의 칙령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교황은 사절을 보내어 그들을 치리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가 주관하는 라테란 지방교회회의 결정사항들은 자연적으로 공의회로 발전되었고 새롭게 서품되는 주교들은 순명서약과 함께 정기적으로 교황청을 방문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세속군주의 주교 감독을 폐지하기 위한 그레고리오 7세의 신념이었습니다 신성로마제국의 세속군주들은 자신들이 직접 주교들을 서임하여 직책과 은전을 베풀어 왔습니다 전임 교황이었던 알렉산데르 2세(Alexander PP. II)가 신성로마제국의 헨리 4세(Henry IV)황제의 고문 5명을 파문함으로써 신성로마제국과 교황청 사이에는 알력이 조성되었습니다 밀라노의 교구장이 공석되었을때 헨리4세는 황제의 측근을 임명하였으나 파타리노들은 교황의 측근을 추천함으로써 마찰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신도 서임에 관한 교황청의 단죄에도 불구하고 신성로마제국은 밀라노, 스폴레토, 페르모, 독일에서 헨리 4세의 측근들을 주교와 아빠스(Abbas,수도원장)로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1075년 사순절 로마회의에서 그레고리오 7세는 세속적인 서임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교회내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교구 점류의 모든 권리를 신성로마제국 황제 헨리 4세로 부터 귀속시키는결정을 하였고 1075년 12월, 교황은 신성로마제국 헨리 4세에게 공식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의 서신을 통보받은 헨리 4세는 1076년 1월 보름스(Worms)에서 교회회의를 소집하고 교황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주교 26명의 서명을 받아 그레고리오 7세의 독단과 범죄를 규탄하고 그레고리오 7세를 폐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76년 사순절, 로마회의에서 그레고리오 7세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헨리 4세를 폐위시키지는 않았으나 직위에서 파문하고 모든 권한을 정지시켰으며, 그 신하들은 면죄를 주어 교황에게 충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황청의 명령에 반대하여 헨리 4세를 지지하였던 26명의 주교들은 파문 또는 성무 정지를 시켜 치리하였습니다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제후들은 헨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오 7세에게 파문을 취소해 주도록 간청하거나 새 황제를 추대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황제 직위에 대한 위협을 느낀 헨리 4세는 1076년 겨울 소수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알프스 아펜

니노 산맥의 북쪽 카노사(Canossa)에서 회개의 의복을 입고 그레고리오 7세를 대면하기 위해 성문앞에서 이틀간 기다렸던 그 사건이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4세는 제후들의 분쟁속에 교황의 중재적 판결에 복종한다는 조건으로 그레고리오 7세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받아 권한의 일부를 회복하였습니다 1077년 3월15일,제후들이 교황청의 승인없이 수바벤(Swabia)의 공작 루돌프를 새 황제로 선출하자 신성로마제국에서는 3년동안 격렬한 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란을 중재하기 위하여 그레고리오 7세는 "대화"를 발표하여 첨예한 양측의 대립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중재가 실패로 돌아가자 1080년 사순절, 헨리 4세를 파문하고 그를 폐위시키고 루돌프(Rudolf) 공작을 신성로마제국의 합법적인 황제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서 황제의 실권은 완전히 교황에게로 넘어갔으며 이를 계기로 유럽의 질서를 재편하고 교황권의 절대성을 확립하였습니다

1080년 6월, 그레고리오 7세에 의해 폐위된 헨리 4세는 브릭센(Brixen)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라벤나의 위베르트(Wibert)를 대립 교황 클레멘스 3세(Clement III)로 선출하였습니다 1084년, 전열을 정비한 헨리 4세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로마로 진격하여 로마전역을 점령하였습니다 미처 전쟁준비를 하지 못한 그레고리오 7세는 산탄젤로성으로 도피한 후 노르만족의 정복자 로베르 기스카르(Robert Guiscard)의 도움을 받아 다시 살레르노로 도피하여 노르만족의 보호를 받다가 1085년 5월 25일 선종하였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헨리 4세와의 대립과 전쟁에서 패전하였다고 역사는 기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레고리오 7세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는 황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지역 국경을 넘어 유럽의 나라들과 교섭하여 통치자로서의 위엄을 나타내었습니다 덴마크,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잉글랜드, 프랑스 등과 교섭하며 교회의 권위의 우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는 세계 신정국을 구상하였고 교황권을 하나님 주신 우주적 주권으로 보고 감독 임면권과 제왕 임면권을 소유하려 하였습니다 부패한 교회권력을 일신하고 교회를 정화하며 금력과 권력으로 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짧은 재임기간 최선을 다하는 혁신을 시도하였지만 그가 꿈꾼 로마교회의 완전한 회복은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6. 수도원의 개혁운동

(1) 수도원과 수도원의 역사

수도원의 "수도자"(Ascetic)는 사도행전24장16절의 "힘쓰노라"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수도원의 어원은 장인이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운동을 잘 하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Discipline, Train)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신적·윤리적 측면에서 "길들이다, 억누르다(Tame)"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여기에서 영어단어 "Ascetic"(수도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수도생활이 추구하는 것은 "완전(Perfection)한 완덕(完德)"에 있습니다(창세기17:1, 신명기18:1, 마태복음5:48, 골로새서1:28). 성도들이 체험하는 완덕은 영적 최고의 경지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수도원 제도는 초대교회 세례요한의 생활을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마태복음3:1~4). 사도바울의 인생도 정해진 거처없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볼 때 원시적 수도사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갈라디아서5:17). 사도시대 이후 140년경 "헤르마스의목자"(The Shepard of Hermas)는 높은 수준의 신앙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3세기경, 결혼을 거부한 "거룩한 동정남여"(The holy virgin)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며 수도적 삶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니케아전기 교부들인 터툴리안, 오리겐, 키프ريان 등과 같은 당대의 최고 지도자들 또한 수도적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3세기 중엽, 이집트 사막을 중심으로 하는 나일강 유역에서 고행자들은 경작을 통한 최소의 양식으로 목숨을 유지하며 기도와 명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250년경 데시우스황제의 박해기에는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이곳에서 은둔자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수도원제도의 창시자로 알려진 성 안토니(St. Anthony, 251~356)는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하였으나 은둔생활의 장점을 신자들에게 최초로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명상과 성경읽기 등을 통한 은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안토니가 20세때, 마태복음 19장21절을 읽고 300에이커에 달하는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베풀고 55세에 이르기 까지 2일 1식을 하는 등 기도와 노동으로 은둔형 신앙생활을 몸소 실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카리어스(330~394)는 안토니의 제자로서 극단적인 고행 수도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카리어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과자 장사를 하다가 30세에 예수를 믿고 광야로 나아가 암자를 짓고 수도생활을 하였습니다. 3년을 극소량의 빵으로 지내다가 하면 20일간 깨어 기도하며 모기 한마리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6개월 동안 참회하는 극단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극단적 고행 수도사로 시리아 사람 시므온(Symeon, 388~459)도 마찬가지로

다 마태복음 5장4절과 8절에 이르는 팔복을 읽고 수도원에 들어가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바위에 쇠사슬로 스스로를 묶고 고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히 시므온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수도원에서 수도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 고행을 계속했는데 그래서 시므온을 "기둥성자"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동방에 수도원제도를 소개한 파코미우스(Pachomius,292~346)는 공동체적 수도원을 시작한 최초의 수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고행을 해왔던 원시적 수도사와는 달리 4세기 초 부터는 이집트 나일강변 타벤히시(Tabehisi)섬의 폐허된 마을에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하고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자급자족 능력을 배가시킴으로 수도원의 초기적 형태를 유지하였습니다 타코미우스 수도원은 30~40명씩 가족단위로 배치하여 노동과 신앙과 성찬과 신앙교육 등 체계적인 수도원을 조직하였습니다

동방수도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바질(Basil the Great,329~379)은 콘스탄티노플과 아테네에서 철학, 문학, 수사학을 배워 귀국한 후 357년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바질은 이집트 등지에서 순례한 후 "수도규칙서"를 만들었으며 지도자의 권위를 높여 절대복종의 수직적 관계를 정착시켰습니다 수도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극빈한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었으며 당시 동방지역 수도사들은 한때 10만명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동방수도원을 서방에 전파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Athanasius,296~373)였습니다 그가 저술한 "안토니의 생애"를 통하여 서방에 수도원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마틴과 제롬(Jerome,345~420),어거스틴(Augustine,354~430)이 서방 수도원 운동을 촉진시켰습니다 특히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수도원의 발전은 수녀원의 태동을 가져왔고 투르의 마틴(Martin of Tours,316~396)은 프랑스에 수도원을 전파한 최초의 주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서방 수도원운동의 개혁자 베네딕트(Benedict of Nursia,480~547)는 서방수도사들의 대감독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북유럽과 잉글랜드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서 550년에서 1150년에 이르는 600년간 베네딕트 세기를 이루었습니다 베네딕트는 파코미우스와 바질이 형성한 수도규칙을 보완하여 새로운 정형화된 수도규칙을 만들었고 이것은 오늘의 카톨릭수도원과 교단조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베네딕트는 로마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청소년기인 15세에 동굴로 들어가 엄격한 은둔생활을 한 후 수도사들을 모아 529년 몬테 카시노(Monte Cassino)산정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농사와 환자치료와 전도와 교육을 통하여 수도사들에게

큰 감화를 끼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베네딕트 수도회는 종교개혁 당시에 12,000개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자수도원 170여개, 여자수도원 303개나 이를 정도로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트수도원의 규칙은 7개조항으로 ①수도원은 선거에 의해 종신직 수도원장을 선출하고 수도사는 원장에게 절대 복종한다 ②원장과 수도사는 규칙앞에 평등하다 ③수도사의 제일임무는 예배이며 노동과 독서의 생활은 절대 필요하다 ④수도사는 다른 수도원으로 이동이 불가하다 ⑤수도원생활은 규칙적이며 고행생활을 절대적인 요소로 하지 않는다 ⑥각 수도원은 독립적,자립적 운영으로 타 수도원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⑦수도원 생활목적은 하나니의 사랑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입니다

910년의 프랑스 클루니 수도원과 시터수도원의 버나드 개혁운동을 거친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를 본받아 빈궁하게 살며 박애정신의 실천과 순종을 강조해 온 탁발수도회(Friar)와 1216년 도미니크(Dominic de Guzman,1170~1221)의 새로운 수도단 운동이 창설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프랜시스(Francis of Assisi,1182~1226)도 프랜시스 수도단을 창설하였습니다 도미니크의 수도단 운동은 알버트 마그너스(Albert Magnus)와 토마스 아퀴나스(Thoma Aquinas)와 같은 대신학자를 배출하였으며 엑크하르트(Eckhart)와 타울러(Tauler)와 같은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개혁적인 인물로 알려진 사보나롤라(Savonarola)가 수도단운동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단은 "걸식을 통한 자신의 청빈생활"과 "설교와 봉사를 통한 이웃사랑"을 양대 원칙으로 삼고 "연구하고 전도하라"(Study and Preach)는 슬로건을 표방하였습니다 프랜시스수도단은 "빈곤, 독신, 순종"의 3대 서약을 통하여 수도행활을 하는 단체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설립자인 아시시(Assisi)에게 성자(Saint) 칭호를 주었습니다 프랜시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에 죽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유언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수도원(修道院)은 수도사와 수녀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수도원장의 지도 아래 매일 미사와 성무시도(聖務時禱)를 행하고 또 학문과 노동을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식음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중세에 설립된 수도원은 일반들의 금지구역으로 수도사와 수녀를 비롯하여 수도생활과 관련된 사람들만 출입이 가능하였습니다 수도원은 집회실, 객실, 응접실, 성당 등으로 나뉘어 져 있고 보다 큰 규모의 수도원은 구내에 수련원과 병실, 채원(菜園)과 축사(畜舍)에서 묘지까지 일체의 것을 자급자족하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수도원내에서는 하루내내 거의 대부분을 침묵으로 지내고 있으며 중세 수도원에서는 수도사 양성을 위한 수도원학교를 설립하여 직접 경영하였고 외부의 특별한 자제들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와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시설이 갖추어진 수도원도 다수 있었

으며 근세에 들어서는 외부활동도 첨가하여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에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클루니(Cluny)수도원

클루니 수도원(클뤼니수도원,클루그니수도원)은 프랑스 클루니에 위치한 수도원으로 베네딕트회 수도원이었으며 오베르뉴의 영주이자 경건공이라는 칭호가 붙은 아키텐 공 윌리엄 1세에 의해 910년경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부르군드의 사냥용 숲을 기부하면서 윌리엄은 수도원을 예배 보다 내세의 임무로 부터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한 수도원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윌리엄이 최초로 수도원을 건립할때에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수도원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교회를 세개나 짓는 등 규모면에서 몬테 카지노(Monte Cassino)다음으로 큰 대규모 수도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동시대의 후원자들은 일반적으로 수도원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가족중에서 수도원장을 임명하였으나 윌리엄 1세는 교황 세르지오 3세의 추인을 받아 베르노 수도원장을 초대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베르노 수도원장을 중심으로 수도원을 개혁하는 이른바 "클루니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클루니 개혁에서 교황 우르반 2세와 서양의 영주들이 있었으며 이는 10세기 에서 12세기를 거치는 동안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클루니 수도원은 최초의 여성 성직자가 11세기 부터 인정되었습니다

클루니수도원에서는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서를 철저히 준수하였고 서양의 군주들이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11세기 베네딕트회의 설립은 유럽사회의 핵심이었습니다 클루니 수원의 명성은 3명의 교황을 배출함으로써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수도원이 되었으며 교황직할 수도원으로 귀족과 특권계층의 압력을 받지 않는 순수 수도원이었습니다 특히 클루니 개혁에 "오도"와 "베드로"와 같은 수도원장이 주도함으로써 개혁운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타 수도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당대 수도원들은 성직매매와 성직자의 결혼 등 혼탁한 사생활들이 문제였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은 이러한 세속화된 생활신조들을 혁파하고 성직매매와 성직자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특히 봉건지주간의 알력으로 인한 분쟁을 중지시키고 그리스도의 수난기를 상징하는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를 휴전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실효를 거두었습니다(Truce of God Movement)

937년, 17개였던 지수도원이 994년 37개로 증가하였고 휴(Hugh,1049~1109)가 원장일때 200개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981년과 1089년 재건작업을 거쳐 1132년엔 서유럽최대의 수도원이 되었으나 1790년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

으며 일부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3) 시터수도원(Citeaux)

시터 수도원은 프랑스 시터에 위치한 수도원으로 귀족과 중산층 출신의 자녀들로 중심이 된 클루니수도원과 함께 수도원의 양대 개혁으로 불리워 지는 시터수도원은 대부분 농민과 빈민 출신의 수도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터 수도원 수도사들은 금욕생활을 강조하며 신학적인 연구보다 명상에 힘을 기울이고 농사와 노동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113년, 버나드(Bernard)가 시터수도원장에 취임한 이후 1115년에 클레르보(Clairvaux)에 수도원을 설립하고 12명의 수도사를 파견하여 수도원 개혁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버나드는 겸손하고 감화력이 있는 인격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황과 제왕들이 수도원을 찾았고, 십자군을 감동시키며 그의 깊은 지혜는 당시의 많은 분쟁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버나드는 평생에 걸쳐 수도원 원장으로 재임하며 중세 수도원의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을 형성하고 그의 설교는 후대 마틴 루터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저술한 80여편의 아가서 설교는 고전적 유산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사학자인 필립 샤프는 버나드 수도원장의 신유와 치유행적들에 관하여 기술함으로서 버나드가 당시 설교와 치료에 관한 사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나드의 신학은 중세교회의 신학을 유지하였으나 아벨라드(Abaelard)의 자유사상과는 구별되었습니다 마리아 무흠설(the immaculate conception of Mary)을 반대하고 세례를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보는 세계관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미덕을 강조한 그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시행하신 세족례를 성례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가 사상에 공헌한 것은 그의 신비적 사상에 있었습니다 그의 사상의 특색은 단지 무한자에 대한 동경에 그치지 않고 고뇌하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생각하는 열정에 있었습니다

버나드의 신앙은 그가 지은 찬송에도 나타나 있는데 "오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 쓰셨네"(O Sacred Head Now Wounded)와 "구주를 생각만 해도"(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찬송가로 남아 있습니다 시터수도원은 클레르보에 이어 3개가 세워졌고 1151년에는 300개로 증가하였고 13세기 중엽에는 1800개가 넘는 시스터산(Cistercian)계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버나드를 중심으로 수도원의 개혁운동이 시작되면서 수도단 운동을 신비주의적 신앙운동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중세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4) 도미니크(Dominic)

도미니크는 1170년 스페인 북부 카스티야지방 칼라로가(Calaroga)의 궁핍한 농촌에서 태어나 발렌시아 대학교에서 10년간 수학하고 24세에 오스마 대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1203년 남부 프랑스에 부임하여 디에고 감독을 수행하며 프랑스 이단들을 교도하는 작업에 나섰으며, 1204년 주교 디에고 데 아제베도와 함께 덴마크와 북유럽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시기에 알비파 신도들을 로마카톨릭교회화 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도단 설립을 교황 인노센트 3세에게 청원하였으나 교황은 기존의 프란시스 수도단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새로운 수도단 설립을 불허하였습니다 1216년 인노센트 3세가 선종하고 교황 호노리우스 3세에게 다시 청원을 하여 도미니크회라는 명칭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교황 호노리우스 3세는 도미니크에게 Magister Palatii(the Office of the Palace)직분까지 주어 교황청의 성경해석 자문역까지 맡게 하였습니다

1220년,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에서 제1회 도미니크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걸식을 통한 자신의 청빈"과 "설교와 봉사를 통한 이웃사랑"을 양대원칙으로 결정하고 천명하였습니다 도미니크는 이듬해인 1221년 8월6일, 볼로냐에서 소천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도미니크 수도단은 유럽 각국에 60여개의 수도원을 설립하였고 1228년에는 폴란드, 덴마크, 그리스, 예루살렘에 수도원을 새롭게 설립하였습니다

도미니크 수도단은 걸식과 봉사를 중시하면서 연구를 매우 중시하여 "연구하고 전도하라"(Study and Preach)는 슬로건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오늘날의 신학대학과 같은 형태의 4년제 철학,신학과정과 3년간의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도미니크수도단은 고행과 의식보다 연구와 설교를 중시하여 알버트 마그너스(Albert Magnus)와 토마스 아퀴나스(Thoma Aquinas)와 같은 대신학자를 배출하였으며 엑크하르트(Eckhart)와 타울러(Tauler)와 같은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개혁적인 인물로 알려진 사보나롤라(Savonarola)가 수도단 운동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 십자군운동(The Crusades)

1096년:교황 우르바노 2세, 군중 십자군

1096~1099년:제1차 십자군원정

1147~1148년:제2차 십자군원정

1189~1192년:제3차 십자군원정

1202~1204년:제4차 십자군원정

1208년:알비 십자군

1212년:독일과 프랑스에서 계시받은 소년의 선동, 어린이십자군 3만여명

1218~1221년:제5차 십자군원정

1228~1229년:제6차 십자군원정

1248~1249년:제7차 십자군원정

1270년:제8차 십자군원정

(1) 십자군운동(十字軍,croisade)

3세기 이후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동선을 따라 성지순례를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슬람제국들은 종교목적의 성지순례를 용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Battle of Manzikert)를 기점으로 군사적 원정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만지케르트 전투는 비잔티움제국과 셀주크제국 군대간의 전투로 아르메니아의 만지케르트근교에서 발생하였으며 비잔티움제국의 패배로 결정이 난 전쟁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로마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하자 서유럽은 교황 우르바노 2세를 중심으로 안디옥, 예루살렘 등 기독교 성지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성지회복보다 동방정교회를 로마카톨릭 통치아래 두려는 권력구조의 일원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의 압박으로 괴로워하던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알렉시오스 1세 콤네노스의 요청을 받아들여"라는 칙서의 기록은 알렉시오스 1세의 딸인 안나 콤네나가 쓴 "알렉시아드"의 기록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확성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① 군중 십자군(1096년)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은자 피에르를 이용하여 전쟁을 선동합니다. 은자(隱者) 피에르(Pierre l'Ermite, ~1098)는 중세 유럽의 광신도로 은둔자였습니다. 그의 일과는 성 베드로가 꿈에 나타나 자신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이슬람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헛된 주장을 이용한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카

톨릭신자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군사행동을 호소하며 전쟁에 참가하는 신자들에게는 전대사를 주겠다고 반포하였습니다. 전대사(戰大赦, Indulgentia)란 "은혜", "관대한 용서"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죄로 인한 벌을 탕감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으로 카톨릭신자들에게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당대의 "레몽, 고드프루아, 보에몽" 등 여러 영웅들이 성지를 회복하려 전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앞서 은자(隱者) 피에르(Pierre l'Ermite)가 기사 레이날도, 걸인 월터와 함께 일반 민중들을 모아 십자군보다 먼저 출발하였는데 이들을 군중 십자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군중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도 모른 채 무조건 나아갔으며, 독일에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베오그라드에서 약탈을 일삼는 등 가는 곳마다 약탈을 자행하였으나, 헝가리 왕국 기병대의 반격으로 대패하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한 군중십자군은 동로마제국 알렉시오스 1세에 의해 다시 셀주크 투르크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다시 약탈을 일삼다 셀주크 투르크 술탄 킬리지 아르슬란 1세에게 전멸당하면서 기사 레이날도는 항복하고 피에르는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도주하였습니다.

② 제1차 십자군 원정(1096~1099년)

이슬람의 통치자들은 양대 파벌로 인하여 분열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십자군에 대한 대대적인 승리로 인하여 그들의 사기는 진작되어 있었습니다. "레몽, 고드프루아, 보에몽"을 지휘군으로 하는 십자군은 1096년, 콘스탄티노플을 접수하고 1097년, 니케아를 공격하여 단시일내에 점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게릴라전으로 전열을 갖춘 이슬람에 의해 안디옥전쟁은 8개월이 걸려서야 달성되었습니다. 십여년의 영토확장으로 1099년, 마침내 예루살렘 정복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은 많은 시민들을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하는 만행으로 유명하여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리아에서 팔레스타인에 이르는 중동지역에 예루살렘 왕국 등 4개의 십자군 국가가 건설되었습니다.

③ 제2차 십자군 원정(1147~1148년)

중동지역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기독교인과 군소도시에서 거주하는 무슬림이 공존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의 영웅 이마드 앗 딘 장기가 나타나 에데사 백국을 점령함으로써 제 2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황 유게니우스 3세(Eugenius 3)의 호소에 대하여 당시 명성높은 설교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St. Bernard of Clairvaux)는 교황의 부탁을 받고 십자군이 결성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7세(Louis 7)와 독일의 콘라드 3세(Conrad 3)를 중심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결성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일원화된 수직적 통제가 되지 않았고 전과를 이룩하지 못한

채 소아시아 등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④ 제3차 십자군 원정(1189~1192년)

1187년,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Saladin)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되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8세는 예루살렘 성지탈환을 위한 십자군을 호소하였습니다 잉글랜드의 사자심왕 리처드 1세(Richard1), 프랑스의 존엄왕 필립 2세(Philip augustus2), 신성로마제국의 프레드릭 1세(Frederick Barbarossa) 등 3국 연합으로 제 3차 십자군을 조직하였습니다 1190년, 원정 도중 신성로마제국 프레드릭 1세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3국은 각국의 이익 추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존엄왕 필립 2세는 자국내 잉글랜드 영토를 탈환할 목적으로 1191년 아크레를 접수한 후 귀국을 단행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 3차 십자군 원정은 "리처드 1세의 십자군"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리처드 1세는 이슬람의 살라딘과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기독교인의 예루살렘의 방문에 대하여 통행 자유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⑤ 제4차 십자군 원정(1202~1204년)

교황 이노센트 3세(Innocent3)의 요청으로 예루살렘의 점령자인 이슬람 본토 이집트 공략을 목표로 제4차 십자군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로 가는 수송자금이 부족하여 부족분 공급을 위해 베네치아 공화국은 헝가리왕국을 공략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동일한 기독교국가를 공격한 사유로 베네치아를 파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치아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플랑드르(Flanders) 백작 볼드윈(Balwin)이 황제가 되어 라틴제국을 건국하였습니다 교황청은 파문하였던 라틴제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예루살렘 원정을 요청하였으나 이집트정복은 물론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멸망한 비잔티움제국의 황족들은 제국령 각지에서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소수민족으로서의 자치권을 유지하였습니다

⑥ 알비 십자군(1208년)

12,13세기경 프랑스의 남부지역 알비와 트루즈를 중심으로 알비(알비주아파)라는 영지주의 교파가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 이 들은 세속의 일은 사악하고 인간의 영혼만이 선(善)이라고 보는 신학적 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08년 로마 교황청은 알비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알비파 토벌을 위한 알비십자군을 일으켰으며 1350년 알비파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⑦ 어린이 십자군(1212년)

1212년, 프랑스와 독일에서 계시를 받은 목동 "스데반"과 소녀 "니콜라스"의 선동에 의해 소년, 소녀 3만여명을 조직한 것으로 "소년 십자군"(Children's Crusade)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지중해까지 행진하였으나 일부는 난파로 죽고, 일부는 상인들의 농간으로 북아프리카지역의 노예로 팔려가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였습니다.

⑧ 제5차 십자군 원정(1218~1221년)

예루살렘 왕국의 후신인 아크레 왕국의 장 드 브리엔느가 이슬람의 본토인 이집트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 때에 동방에서 수수께끼의 기독교 왕국 프레스터 존이 군대를 인솔하여 십자군을 지원하러 온다는 전설이 널리 퍼져 있었으나 그 정체가 훗날 유럽의 전국토를 점령할 몽골제국의 징기즈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⑨ 제6차 십자군 원정(1228~1229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십자군 원정을 조건으로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임명한 프리드리히 2세에게 지속적으로 원정을 재촉하였지만 그가 계속하여 미루자 교황은 프리드리히 2세를 파문하였습니다. 그러자 1228년 파문된 상태에서 프리드리히 2세가 출정을 하였습니다. 때 마침 이집트 이이유브왕조의 술탄 알카밀이 내란을 겪고 있는 터에 전쟁할 여건이 되지 않자 프리드리히 2세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이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1239년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 맘루크 왕조가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면서 평화조약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1239년과 1240년에 프랑스가 원정에 나섰지만 전쟁을 하지도 못한 채 귀환을 거듭하였습니다.

⑩ 제7차 십자군 원정(1248~1249년)

알카밀의 사후 1244년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공격으로 인하여 2,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학살당하고 지역은 함락되었습니다. 1248년, 제7차 십자군 원정을 일으킨 프랑스의 성왕 루이가 원정을 시작하여 1249년 다미에타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아이유브왕조의 살라딘 2세에 의해 실패하고 1250년, 루이가 포로됨으로써 십자군 원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⑪ 제8차 십자군 원정(1270년)

프랑스의 성왕 루이 9세는 동생인 시칠리아왕 샤를과 함께 출병하여 이집트 맘루크 왕조 바이바르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1270년 루이 9세는 튀니스에서 사망하고 동생인 샤를은 잉글랜드왕 에드워드 1세와 협공으로 십자군 원정을 계속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집트 맘루크 왕조 바이바르스는 트리폴리를 점령하고 1291년, 팔레스타인 아크레를 점령하여 십자군을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2) 십자군 원정의 교훈

십자군 원정의 실패는 첫째, 이슬람의 단결이 원인이었습니다. 초기 십자군의 연전연승은 이슬람의 분열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후 장기와 살리딘과 같은 이슬람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이슬람은 단결하였고 이슬람의 정복지역에서 그들은 십자군과 달리 관용정책으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둘째, 십자군의 와해와 내분이 원인이었습니다. 십자군은 상호간, 내부권력간, 참가 국가간, 대립과 이익분할 등의 마찰로 일치단결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셋째, 무지와 광신, 편협성과 포악성, 약탈과 학살정책의 횡포는 대중성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비잔티움제국에서 십자군은 동방정교회 성도들을 학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고착화는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한 편, ①십자군 원정은 교황의 세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각국의 군왕들이 로마교황의 권위 아래 복종하였고 교황의 칙서에 순종하여 출정하였습니다.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교황청은 군인들의 많은 재산과 토지를 인수하였고 교황청의 재정은 굳건해져 갔습니다. 또한 ②민족과 국가의 단결로 기독교형제국이라는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③봉건제도가 쇠퇴하고 중산층과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힘의 권력구도가 영주에서 군주로 이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④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과 유통업을 발전시켰고 지중해 연안의 도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⑤이슬람과의 잦은 접촉으로 교류가 촉진되었고 스콜라신학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8. 스콜라철학(Scholasticism), 실재론(Realism)과 유명론(Nominalism)

(1) 스콜라신학(스콜라철학, Scholasticism)

(※스콜라철학과 스콜라신학은 동일한 명칭으로 신앙적 관점이 중요한 사항이 되므로 이 글의 제목에서는 스콜라신학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스콜라(schola)는 고대 그리스어 스킨(σχολή)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라틴어로는 "학교"로 번역되었고 지금은 "학파"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콜라철학은 9~15세기에 유럽의 정신을 계승한 신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일어난 사상적 사조를 통틀어 "스콜라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콜라철학은 기독교의 신학에 기초하는 이유로 "스콜라신학"이라고도 하며, 스콜라철학이 추구하는 진리와 인식의 문제를 신앙과 연결하고 인간의 이성 또한 신의 계시와 전지전능적 차원에서 이해하였습니다. 스콜라철학자들은 신의 존재와 계시, 신과 인간과의 관계와 신앙적 추구를 논리적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조직신학의 산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스콜라철학은 기독교의 교의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작업이 진척됨으로 하나의 완성되어가는 철학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프랑크왕국의 샤를 대제는 유럽 각국에 신학원을 설립하고 신학적 학문육성을 통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스콜라철학의 명칭은 신학원 교수(doctores scholastici)들에 의하여 규정되었으며 4세기 이후 서유럽 각국의 수도원과 주교좌 성당의 부속학교를 시작으로 조직화 세력화 하였습니다.

스콜라철학은 중세학문연구의 방향과 목적을 성경과 교부들의 저서를 기준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의 문헌 등 다양한 학문적 탐구로 시작되었습니다. 스콜라철학은 이와같은 문헌들에 대하여 독해, 주석, 해석 등의 추가적인 작업들을 구체화 하였고, 이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선명한 기록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권위가 인정되었으며 스콜라 신학의 캐논이자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몫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함으로써 거듭남을 생산하는 재창조적인 행위를 위한 것입니다. "신앙의 이해와 신앙의 실천"은 스콜라철학이 목적으로 하는 가치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영성과 그것을 기대하는 이성은 항상 대립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스콜라 철학에서 가치있게 다루는 "인간의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콜라철학은 다양한 견해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콜라철학이 중세철학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서 바른 신관이 계속

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교부와 신학자들의 저술서들 가운데 12세기 "페트루스 롬바르두스"(Petrus Lombardus, 1095-1160)의 "명제집"(Quatuor libri Sententiarum, 1148~1151)은 조직신학은 교부와 중세신학자들의 교훈을 집대성한 것으로 삼위일체론,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죄, 성육신과 구원, 십계명, 성례와 심판,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페트루스 아벨라르두스"(Petrus Abaelardus, 1079-1142)는 중세시대 작곡가이며 프랑스의 초기 스콜라 신학자로서 스콜라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벨라르두스는 "변증법"을 통하여 신학적 논점을 긍정과 부정적 관점에서 양자로 분류함으로써 다양한 신학적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자연신학의 선구자이며 토마스학파의 아버지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ae, I, II 1266-1272, III 1272-73, 미완성)은 스콜라신학의 정점에 있는 저술로서 조직신학을 비롯하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완성적인 철학을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샤를대제로 부터 12세기까지에 걸쳐 발현된 스콜라철학은 스콜라신학의 두번째 시조이며 중세 최고의 철학자인 켄터베리대주교 안셀무스(Anselmus, 1033 아오스타 ~ 1109. 4. 21. 이탈리아)의 실재론에 의해 보편논쟁에 가속화를 일으켰습니다 안셀무스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으며 신학적 가치들을 명료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서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신앙의 가치속에서 보다 논리적으로 정립시켰습니다

13세기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사상은 중세 스콜라철학을 지적인 탐구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것을 보다 체계화시킨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이며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하여 스콜라 철학은 학문적 완성을 이루어갔습니다 14세기 신앙과 이성의 조화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명론자와 신비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축과 실재론자의 보편논쟁은 가속화 되었고 스콜라철학은 세상의 학문을 주도하는 철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 보편논쟁(普編論爭)

보편(universality)이란 "우주나 존재의 모든 개별적인 보기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속성이나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것에 공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논쟁은 보편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유로만 존재하는가에 관한 중세 스콜라 철학의 논쟁으로 이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가 플라톤(Platon)사상을 수용하며 교부철학을 완성하였을때, 이슬람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사상이 전해짐으로서 보편논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논

쟁이 아니라 신앙적인 논쟁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보편논쟁은 스콜라철학의 시대속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스콜라철학의 초기 사상은 플라톤의 실재론 또는 실념론이 지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관념론과 맥이 닿아져 있습니다 플라톤 사상이 정점에 이를 무렵 아리스토텔레스의 비신학적 사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온건실재론이 부상하였으나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범주속에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와 둔스 스코투스(Jean Duns Scot , 1265-1308)의 등장으로 보편논쟁은 본격화되고 실재론과 유명론은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자연신학의 선구자이며 토마스학파의 아버지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1224~1274)와 근대 프란체스코 학파의 대표이자 "정교한 박사(doctor subtilis)"라는 명성으로 유명한 둔스 스코투스(Jean Duns Scot , 1265-1308)의 보편논쟁은 스콜라철학의 해체시점에서 일어난 철학사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3) 실재론(實在論,Realism)

실재론(實在論,Realism)이란 "인식론에서, 인간이 인식하는 대상이 의식이나 주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이론"으로 초기에는 개념실재론과 온건실재론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플라톤의 개념실재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온건실재론은 모두 "보편은 실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보편은 사물에 앞선다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이므로 사물안에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보편이 사물에 앞선다는 플라톤의 사상은 보편이 사물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피조물과 관계없이 질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물, 즉 피조물로 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미 존재하며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러한 사상은 "진선미"와 "이데아"사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의 관점에서 사물이 없는 질서와 보편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은 사물안에 존재함으로 함께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재의 본질인 보편개념이 실존을 소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개개인과 관련속에 그들의 내면과 정신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은 사물과 분리되어 외부에 존재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보편의 실재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과정이든 사물과 연결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재론의 핵심철학인 것입니다

실재론은 삼위일체론과 조직신학 등 교회의 기본교리를 설명하는 기초가 되었으며 안셀무스(Anselmus,1033~1109.4.21,이탈리아)와 보나벤투라(Bonaventura da

Bagnoregio,1217~1274,이탈리아)가 실재론을 대표하는 스콜라철학자들로써 이들은 실재로서의 우주적 보편개념이 구현화된 개체(사물) 이전에 존재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4) 유명론(唯名論,Nominalism)

유명론(唯名論,Nominalism)이란 "보편자(普遍者)는 개체에서 추상하여 얻은 명칭일 뿐, 실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보편은 명칭이고 사물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명론은 보편개념의 실존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편은 사물에 앞설수 없고, 또한 사물안에 존재할 수도 없으며, 인식 주관에만 존재하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유명론자의 대표적인 스콜라신학자인 잉글랜드출신의 윌리엄 오컴(William of Ockham,1285~1349,잉글랜드)은 정신세계를 벗어나는 일반적인 진리나 사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물에 대한 관찰의 결과로서 정신세계의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이룩한 주관적 사상이며 하나의 추상적인 명칭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명론자들은 보편적인 사물보다 개별적인 사물, 즉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신세계가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는 감각에 의해 체험되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개개의 사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앙의 진리는 신앙의 차원에서 진리이고 종교적 본질의 진리는 직관적인 신앙에 의해서만 인지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명론자들은 기독교 교리가 이성적 인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함으로써 기독교적 교리를 배제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명론이 신앙중심에서 인간중심의 휴머니즘(Humanism)으로 분리되고 신앙의 나라에서 지상과 자연주의 사상중심으로 분리되어 가는 경향을 구체화하며 교회철학으로 부터 완전히 분리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명론은 보편적 개념이란 인간 이성이 만들어낸 것으로 명칭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로써 윌리엄 오컴(William of Ockham,1285~1349,잉글랜드)과 요하네스 로스켈리누스(Johannes Roscellinus, 1050~1125)가 대표적인 유명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실재란 지적인 추상에 있지 않고 개체에 속하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명론은 실재론과 대립하며 인간중심의 철학으로 나아갔으며 철학의 세속화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향력은 보다 확산되는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5) 실재론과 유명론

스콜라철학의 시작점은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면서 실재론과 유명론이 대두되었고 실재론은 신앙을 체계화 하고 이론화 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유명론은 인간중심의 철학과 가치와 사상으로 발전함으로써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에 기여하였습니다. 실재론은 교회와 국가와 가정은 초월적 실재에서 구현된 산물이므로 이것은 공동체적 관점에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론은 교회와 국가와 가정은 계약의 성립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의 결합인 것입니다.

실재론은 실재가 갖는 절대성의 가치에 의해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신앙하지만, 유명론은 유명론이 갖는 이론의 함의에 따라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콜라철학의 핵심은 신학이 모든 학문의 상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신앙을 위해 지혜를 구하든, 지혜로서 신앙을 구하든 모든 것은 신앙중심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유명론의 대두로 인하여 스콜라 철학은 해체를 맞이했고 두개의 철학으로 분리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철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9. 안셀무스(안셀름,Anselmus,1033아오스타~1109.4.21,이탈리아)

(1) 안셀무스(안셀름)의 생애

안셀무스는 안셀름이라고도 하며, 1033년, 부르고뉴왕국의 아오스타(현,이탈리아 피에몬테주)에서 귀족 가문인 아버지 곤돌포(Gondulfo)와 어머니 에르멘베르가(Ermenberga)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안셀무스의 아버지 곤돌포는 롬바르디아의 귀족이었으며, 어머니 에르멘베르가는 유명한 부르고뉴 가문 출신으로 상류층에 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문의 배경으로 부모님들은 안셀무스가 정치가로서 성장해 가기를 원했지만 안셀무스는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했습니다.

1057년, 베크(프랑스 노르망디지방)의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가는 도중 그가 존경하였던 램프랭크 수도원 부원장이 로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리옹, 클뤼니, 아브랑슈에서 시간을 보낸 안셀무스는 1060년 베네딕트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061년 안셀무스는 수사가 되었고 1063년 그의 스승인 램프랭크가 강의 대수도원장으로 승진하자 그의 후임으로 베네딕트 수도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안셀무스는 훌륭한 고전교육을 받고 당대의 우수한 라틴어 학자로 평가 받았으며 수도원에서 높은 지적능력과 깊은 신앙심으로 많은 존경심을 받았습니다.

1077년, "독백론"(Monologium)을 기록하고 이듬해인 1078년, 베크의 대수도원장이 되었습니다. 독백론은 변증론적 기독교의 목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신의 현존과 속성을 초기 중세 사상가들처럼 권위에 호소하지 않고 이성에 의존하여 논증하려 하였습니다. 안셀무스는 정의, 지혜, 능력과 같은 완전함의 측면들이 불균형하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규범이 있고 인간정신이 절대규범을 이해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셀무스가 대수도원장으로 있는 베크는 수사들의 신학탐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안셀무스는 신의 본성과 현존에 관한 질문들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안셀무스가 쓴 "대어록"(對語錄,Proslogium, 원제,지성을 찾는 신앙 Fides quaerens intellectum)은 신의 현존에 관한 존재론적 논증을 확립하였습니다. 마르무티에의 고닐로가 쓴 "신은 없다고 말하는 바보들을 위한 변명"(Liber pro insipiente)에 도전을 받은 안셀무스는 "고닐로에 대한 반박서"(Liber apologeticus contra Gaunilonem)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대어록"의 존재론적 논증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1066년, 잉글랜드 정복왕 윌리엄은 베크 수도원의 후원자로서 잉글랜드와 노르망디의 토지를 수도원에 기증하였습니다. 안셀무스는 체스터에 수도분원을 설립하였고

1093년 3월, 윌리엄왕의 태자 윌리엄2세 루퍼스는 안셀무스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하였습니다. 안셀무스는 윌리엄왕이 몰수한 캔터베리의 주교 토지를 반환하고 대립교황 클레멘스 3세대신 우르바누스 2세를 적법한 교황으로 인정하자 잉글랜드 교회 개혁을 위해 1093년 12월4일 캔터베리 대주교에 부임하였습니다.

윌리엄왕은 안셀무스 대주교에게 성직임명 명목으로 금품수수를 요구했고 안셀무스는 이것을 성직매매행위로 규정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윌리엄은 우르바누스 2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성직자 임명권이 교황에게 있는가 왕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로 2년간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1095년 3월11일, 로킹엄교회회의결과로 인하여 교황의 사절이 로마에서 팔리움을 가지고 왔을때 안셀무스는 윌리엄 2세로 부터 성직임명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로마로 되돌아갔습니다.

1098년, 안셀무스는 이탈리아 바리 공의회에서 필리오케(Filioque,'그리고 성자[聖子]로부터')에 관한 교리조항을 옹호하는 등 공의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099년, 안셀무스는 "왜 신은 인간이 되었는가"(Cur Deus homo?)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구원보속론에 관한 고전적 연구서가 되었습니다.

안셀무스는 스콜라철학의 창시자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논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셀무스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인간의 이성과 철학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로마카톨릭의 "원죄없는 동정녀 마리아"를 교리화하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109년 4월21일, 세속적인 왕의 성직임명과 성직간섭을 거부하였던 안셀무스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그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2) 속죄론(贖罪論, The Doctrine of the Atonement in Anselm)

안셀무스는 보속에 관한 속죄교리를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일관성있는 논리로 설명한 최초의 신학자였습니다. 안셀무스는 속죄론에 대한 명확한 해결없이 죄와 구원에 관한 신앙인들의 고민과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099년, 안셀무스는 잉글랜드를 떠나 로마로 가며 "왜 신은 인간이 되었는가"(Cur Deus homo?)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구원보속론에 관한 고전적 중세신학의 대표적인 연구서가 되었습니다.

유한성과 한계성을 가진 인간은 무한성과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봉건사회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보상과 보속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왕에 대한 죄는 귀족과 농노에 대한 죄보다 훨씬 더 많은 보속이 필요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피해자 한사람의 목숨보다

더 큰 것을 내 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규범에 따라 유한성을 가진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보속은 그 방법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원한 죽음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자비에 의해 인간은 공동체적 재창조 행위속에서 정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죄의 정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안셀무스는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악마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고전적 견해를 반박하고 구원의 본질을 성찬식(聖餐式)과 그리스도와의 개별적이고 개인적으로 화평하는데서 발견하였습니다. 세례는 성찬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개개인은 교회와 일치가 되고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범죄하였고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의 가치는 상실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요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어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에 대하여 신앙하여야만 보속의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신앙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인간에게는 그가 왕이든, 귀족이든, 로마카톨릭의 주교라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0.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1224~1274.3.7)

1224~1225년:이탈리아 로카세카성에서 란돌포의 9남매중 7째 아들로 출생

1230년:베네딕트수도회소속 몬테카시노수도원 수업

1244년:도미니크회 수도사

1256년:파리대학교 신학교수

1265년:로마수도원 교수활동

1268년:파리대학교 신학교수

1272년:나폴리대학교 도미니크수도회연구소설립,초대소장

1274년3월7일:파사노바 시토 수도원에서 사망

저서:

명제집주석(Scriptum super Libros Sententiarum, 1252-56)

대이교도대전(Summa contra gentiles, 1259-1264)

신학대전(Summa theologiae, I, II 1266-1272, III 1272-73, 미완성)

진리주제토론집(Quaestiones disputatae de ueritate, 1256-1259)

신의전능주제토론집(Quaestiones disputatae de potentia dei, 1265-1266)

영혼주제토론집(Quaestiones disputatae de anima, 1266-1267)

영적피조물주제토론집(Quaestio disputata de spiritualibus creaturis, 1267-1268)

악에관한토론집(Quaestiones disputatae de malo, 1270(1-15문)/1272(16문))

덕에관한토론집(Quaestiones disputatae de uirtutibus, 1271/1272)

육화될말씀의결합관한토론집(Quaestiones disputatae de unione uerbi incarnati, 1272)

이사야서주해,예레미야서주해,예레미야애가서주해,이사야서주해(1252),욥기(1261~65), 마태복음,마가복음,누가복음,요한복음주해(1265~68),바울서신주해(1265~73),시편강연록(1273)

(1)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생애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토마스 학파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224~1225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의 나폴리 인근지역 로카세카 성(Roccaseca) 아퀴노(Aquino)지방에서 영주 란돌포의 9남매중 일곱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출생연도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여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도를 수용하여 1224년과 1225년을 함께 분류하였습니다 롬바르디아 출신의 아버지와 노르만족의 후예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부이탈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부모가 황제 프리드리히 2세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게 되자 1230~1231년, 5~6세의 어린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몬테카시노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성 베네딕트 수도

회의 수도원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부모는 토마스가 성장하여 수도원장이 되기를 기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239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학업을 중단하고 프레데리쿠스 2세의 후원으로 명문대학으로 성장한 나폴리대학교에 입학하여 논리학, 수사학, 대수학, 기하학, 음악학, 천문학, 문법학을 수학하였습니다. 1244년, 도미니코회의 수도사로 들어간 토마스 아퀴나스를 못마땅하게 여긴 부모님은 학업을 중단시키고 그를 1년동안 설득하며 탈퇴를 요구하였으나 1245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베네딕트회 소속의 명문 수도원을 뒤로한 채, 나폴리의 신생(新生) 도미니코회 소속의 생자크수도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대의 지성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 1193~1280)의 지도를 받으며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독일의 신학자와 스콜라 철학자로서 연금술사인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전하려 하였으며, 신학과 철학 사이에 명백한 경계선을 표시함으로써 철학이 지니는 자율적인 가치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1248년, 도미니코회는 독일 쾰른에 "수도회 대학"(Studium Generale)을 설립하고 초대학장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를 임명하였으며 그의 명성은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1245년 이후 1248년까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파리대학교와 새롭게 설립된 탁발수도회에서 종교적 소명을 가진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322)의 철학과 디오니시우스(Saint Dionysius of Alexandria)의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복음과 중세시대의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연결시키려 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사상에 통합시킨 것이었습니다. 봉건사회의 전통과 베네딕트수도원의 기득권에서 이탈하여 보다 개혁적이고 혁신적이며 새로운 가치중심의 수도원을 통하여 개개인의 삶과 교회 문화적, 영적 쇄신과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시도를 통하여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51~1252년,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도미니코회 명문 파리대학교 교수로 토마스 아퀴나스를 추천하였습니다. 도미니코회 총장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재능과 탁월한 지적학자력은 인정하지만 그의 나이가 27세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생 세르의 위그(Hugues de Saint Cher) 추기경의 추천서를 통하여 토마스 아퀴나스는 페트루스 롬바르두스(Petrus Lombardus, 1095~1160)의 "명제집"(Quatuor libri Sententiarum) 강독자로서 신학강의를 하였으며 명제집 주석집필을 하였습니다.

1256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파리대학교 신학교수로 취임하였습니다. 파리대학교는 수도회 출신 교수와 재속성직자 교수들간의 깊은 알력으로 분열이 극심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대표적인 중세 신학자이며 프란체스코 수도회

총회장과 알바노의 주교 추기경으로 알려진 보나벤투라(Bonaventura) 역시 신학교 수 취임자격으로 2년간이나 제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지성과 모범적이고 규범적인 삶을 바탕으로 수도회 교수들을 궁지로 몰았던 재속성직자의 대표인 기욤 드 생따무르(Guillaume de Saint Amour)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대학자로서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1259년, 파리대학교의 저명한 석학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렵게 성취한 신학교수직을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파리를 떠나 아냐니에서 교황청 강독자로서 일하였습니다. 1261년, 오르비에토에 체류중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이교도대전"(Summa contra gentiles, 1259-1264)의 집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삭발수도회 대표자와 신학자 및 성직자로서 "욥기주석"(Expositio super Iob ad litteram, 1261-65), "디오니시우스의 신명론 주석"(Super Librum Dionysii de diuinis nominibus, 1261-65 혹은 1265-68), 원인론주석(Super librum de Causis, 1261-65 혹은 1265-68), 등을 집필하였습니다.

1265~1268년, 로마의 수도원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Summa theologiae, I, II 1266-1272, III 1272-73, 미완성)을 집필중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의 권능"(Quaestiones disputatae de potentia dei, 1265-1266), "영혼"(Quaestiones disputatae de anima, 1266-1267), "영적피조물"(Quaestio disputata de spiritualibus creaturis, 1267-1268)에 관한 정규토론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기욤 모어베크(Guillaume Moerbeke)의 아라스토텔레스 번역본을 사용하여 "영혼론"(Sententia Libri de anima, 1267-68)과 "감각과 감각물에 관한 주석"(Sententia Libri de sensu et sensato, 1268-69), "자연학주석"(Sententia super Physicam, 1268-69)등의 주석을 집필하는 등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적 지적 학적 탐구력은 대석학 이상의 놀라운 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1268~1272년, 파리대학교 사상 최초로 2회에 걸쳐 교수직을 역임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랍의 아리스토텔레스철학자 아베로에스(Averroes, 이븐 류수드 Ibn Rushd, 1126~1198)주의자들과 지성의 단일성 문제로 논쟁하였고, 보나벤투라의 제자 요하네스 페캄(Johannes Pecham, 영국 프란치스칸 철학자, 1230~1292)과 창조된 세상의 영원성의 철학적 입증가능성의 문제와 실체적 형상의 단일성 문제로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파리대학교 내의 신학적 논쟁은 파리대주교 에티엔 텡피에(Etienne Tempier)에 의해 13개 명제가 정죄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리까지 그 대상으로 지목되는 공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계의 영원성에 관하여"(De aeternitate mundi, 1261-65 혹은 1265-68)를 집필하며 수도회 대표와 성직자이며 교수로서 책임감과 정당성을 표현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논쟁의 시기에 마태복음을 비롯하여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4대복음서 주석"(Glossa continua super Evangelica, Catena aurea, 1265-68)을 집필하였고, "마태복음강독"(Lectura super Mathaeum, 1269-70)과 "요한복음 강독"(Lectura super Ioannem, 1270-72), "바울서신 주석 및 강해"(Expositio et Lectura super Epistolas Pauli Apostoli, 1265-73)등을 집필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집필생활로 인하여 수면은 언제나 부족하였고 피로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많은 저서를 집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 완성도는 기적이라고 할 만한 업적이었습니다.

1272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파리를 떠나 이탈리아 나폴리로 갔으며 1273년까지 바울서신과 "시편주해"(postilla super Psalmos, 1273) 등의 집필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스 축일 미사 중 어떤 환상에 충격을 받은 후 저작활동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비서 레지날드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집필중단의 이유를 여쭙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것들은 모두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 니콜라오스 축일 미사에서 본 환상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로부터 그의 건강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1274년 3월7일, 파사노바 사토수도원에서 수백명의 수도사와 신자들의 배웅속에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생애의 대부분을 집필에 힘을 쏟았고 그의 저서들 대부분은 후대 신학자들의 탁월한 참고서가 되었으며 "토마스학파"가 설립될 만큼 거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사후 50년, 1323년 7월18일 카톨릭교회의 성인으로 시성되었고 중세 최고의 지성이자 기독교 최대의 신학자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 철학과 신학은 구별되는 선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도래하는 필연적인 조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연이 은총에 의해 조화를 이루듯 이성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봉사의 단계로 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은 오늘에 이르기 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 구원론

토마스 아퀴나스의 구원론은 그가 집필한 "신학대전"(Summa theologiae, 1265~127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대전은 신론과 인식론을 중심으로 인간론과 윤리, 성례전 문제등이 설명되었습니다. 신학대전은 유신론(theism)의 기초가 되었고 지성과 신앙의 조화를 합리화 하였습니다. 신학대전의 1부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다루는 신론과 신학의 학문성 문제, 창조와 피조물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2부는 인간의 행복론, 윤리론, 덕론, 은총론, 믿음, 소망, 사랑의 3원덕(三元德)과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4원덕(四元德)을 다루고 있으며, 3부는 그

리스도론, 마리아론, 성사론을 다루고 보론(補論)은 결혼, 죽음, 종말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즉, 신학대전은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고,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논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논하는 것과 그 질문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이었습니다.

신학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련속에서 탐구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존재와 작용은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노선위에 있으며 그 구조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초자연적, 초월적 존재로서 현존하고 있으며 인간은 언제나 창조와 육화 가운데 현존하고 있으므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역사가 곧, 구원의 사역이라고 설명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죄보다 은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속죄의 필요성을 낮은 단계에서 관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랑과 순종으로 겪은 고난을 속죄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문제보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문주의나 휴머니즘적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관하여 어떤 관계속에서 어떤 삶이 화목을 이루는가 하는 많은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질문과 답변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의지의 해석이라기 보다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신앙의 고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1. 보나벤투라(Sanctus Bonaventura)

보나벤투라(Sanctus Bonaventura,1218~1274년7월15일)는 중세시대 최고의 신학자이며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와 함께 동시대 최고의 사상가로서 교황 식스토 5세(Sixtus PP. V)에 의해 "세라핌적 박사"(The Seraphic Doctor), "교회박사"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받습니다 "보나벤투라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레겐다 마요르,Legenda Maior)는 오늘에 까지 이르며 세계의 모든 성직자들의 귀감이 되는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1218년(1217~1221년이라는 견해도 있음), 보나벤투라는 이탈리아 중부 바뇨레지오(Bagnoregio)에서 내과의사였던 부친 "조반니 디 피단자"(Giovanni di Fidanza)와 모친 "마리아 디 리텔로"(Maria de Ritello)사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보나벤투라의 본명은 "조반니 디 피단자"(Giovanni di Fidanza)였습니다 보나벤투라라는 이름은 태어난지 1년쯤 되었을때 심한 중병을 앓게 되자 보나벤투라의 모친 마리아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에게 아이가 낳으면 장래에 수도원으로 보내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 다 그 때 프란체스코가 보나벤투라를 보며 "잘 왔노라"(bona ventura), "좋은 소식이다"(bona ventura)라고 말한 것에서 "보나벤투라" 라고 하였다는 전설이 있으나 1244년, 프란체스코회 가입후 이름을 받았다는 견해도 함께 내려오고 있습니다

1234~1235년, 파리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보나벤투라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 헤일즈의 알렉산더(Alexander of Hales,1185~1245)의 영향을 받습니다 1242년, 자유교양과정을 수료한 보나벤투라는 이듬해 인 1243년, 문학석사학위를 받고 로마관구 소속의 오르비에토(Orvieto)가 아닌 프란체스코회에 입회를 하였습니다 1243~1248년, 프란체스코 수도회 학교에서 신학을 학습하였으며, 헤일즈의 알렉산더(Alexander of Hales,1185~1245)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라 로셀의 요하네스(Johanes)와 외데 리골(Rigol), 그리고 그리스도교 교리에 그리스 고전철학을 접목하는데 공헌하였으며, 자유의지와 자연법에 관한 체계적인 논문을 발전시킨 최초의 중세 저술가이며 프랑스 철학자인 멜리통의 기욤(Guillaume d'Auxerre)등 당대 최고의 석학들로 부터 수학하였습니다

1250년,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집" 주석에 착수한 보나벤투라는 1254년 완성하면서 파리대학교 교수직에 임명되었으나, 재속신학자들의 반대속에서 수도회출신의 교수임명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2년이나 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속신학자 생따무르의 기욤(Guillaume de St. Amour)에 의해 수도회소속 교수들의 탁발 및 청빈생활이 도덕적 악이라는 주장을 계속함으로써 송사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미니코회의 토마스 아퀴나스, 프란체스코회의 보나벤투라와 요크의 토마스 각각 반론을 제기하고, 교황 알렉산데르 4세가 기욤을 정죄함으로써 1257년 교수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단 요아킴주의를 수용한 프란체스코의 7대 총장, 복자 빠르마의 요한(지오반니 다 파르마, Giovanni da Parma 1247~1257)이 자진 사퇴함으로써 8대 프란체스코회 총장에 선출된 보나벤투라는 36개의 분파로 나뉘어진 프란체스코회를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첫 회헌인 "나르보나 회헌"(Narbona)을 만들어 프란체스코의 규율을 엄수하도록 모범을 나타내었고 필설과 수도원 시찰로 내적 갈등의 완화에 주력하였습니다.

1260년, 보나벤투라는 나르보나 총회의 위촉을 받아 "보나벤투라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인 "레겐다 마요르"(Legenda Maior)를 완성하였습니다. 1265년, 요크의 대주교로 임명된 보나벤투라는 1266년, 프란체스코회 총회에서 공인된 레겐다 마요르를 모든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1권 이상 보유하도록 강제하였고, 그 이전의 모든 전기문은 이로서 사실상 전량 폐기되었습니다. 레겐다 마요르는 프란체스코의 생애와 기적, 수도회의 생활원칙과 규범, 프란체스코의 성장과 미래비전을 포함하는 수도원 역사의 중요한 사료가 되어 70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에도 전세계로 번역되어 프란체스코의 삶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273년, 추기경으로 임명된 보나벤투라는 교황 그레고리오 10세의 교회개혁, 예루살렘성지회복, 동방정교회와의 재통합이라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274년 5월 7일 제2차 리용 공의회를 소집하였는데 당대의 최고의 석학과 지성을 공의회로 함께 초청하였습니다. 총회가 회기를 마치기전인 1274년 7월15일, 그의 영혼이 담겨진 프란체스코수도원에서 교황 그레고리오 10세를 비롯하여 동서교회 고위성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환으로 선종하였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집"(1250~54)과 "보나벤투라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1260)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1257), "영혼의 여정"(1259), "성 스테파노의 발견"(1262), "십계명에 대하여"(1262), "성령7은에 대하여"(1268)를 집필하였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파리대학 수학시절 그의 신앙적 선한 생활로 인하여 "보나벤투라는 원죄가 없는 것 같이 산다"는 말을 정도로 신앙의 정도를 인생에 담은 학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밝히는 빛이 우리가 사는 이웃과 마을에 까지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나벤투라에게서 나온 지혜의 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보나벤투라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와 지혜를 보고 감탄한 사람들이 보나벤투라를 향하여 존경심을 나타내었을때 보나벤투라는 "당신들의 삶과 인생이 천국에서는 나보다 앞서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보나벤투라는 단지 학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모범과 규범적인 생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존경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하였고 십자가에 의지하여 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분열된 프란체스코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합하려 하였으며 누가 누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교훈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후세 신앙인들의 관점인 것입니다.

12. 중세대학(스콜라리움, SCHOLARIUM)

중세대학은 중세시대 유럽을 중심으로 등장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진 초급적인 조직구성이었습니다. 11~12세기, 이탈리아, 잉글랜드, 프랑스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들 학교는 학부과정에서 자유와 교육, 전공과정에서 법학, 의학, 신학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중세대학의 기원은 카톨릭교회 소속의 교회학교(본산학교, 사원학교, Cathedral school)와 수도원학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중세대학은 초기에 고대 로마의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으로 "수투디아 게네랄레"(SUTUDIA GENERALE)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학문적 조합을 의미하는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와 "스투디움"(STUDIUM)을 결합하여 "스콜라리움"(SCHOLARIUM)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등 각각의 명칭들이 교육의 특징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이탈리아와 프랑스 남부지역은 법학과 의학을 위주로 하는 볼로냐 대학교(Università di Bologna)를, 유럽의 북부지역은 신학을 전문으로 하는 파리대학교(Université de Paris)를 모델로 삼아 대학교의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도시화와 로마제국의 통치적 구조로 인하여 로마법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들이 증가하였고, 법학에 관한 지식탐구가 학교의 주요과목이 되었습니다. 파비아(Pavia)는 롬바르디아법으로, 라벤나(Ravenna)는 로마법으로 유명한 양대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최고의 학교이며 최초의 법률대학이 탄생한 지역은 볼로냐(Bologna)였습니다. 당대의 대법학자 이르네리우스(Irnerius)가 볼로냐에서 활동함으로써 볼로냐 대학교가 유럽전역에서 법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의 북부지역에서는 신학이 중요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변증법과 논리학이 주요교과로 되어 있었던 북부지역의 학부는 문법학, 수사학, 논리학을 중심으로 자유교과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문법학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된 학문으로 이단시 되었고, 수사학은 문예수준이 뒤쳐져 있어서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원인으로 변증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Johannes Scotus Eriugena, 810년경~877년경)는 9세기 중엽 프랑크왕국 궁정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예정설(Predestination)에 대한 그의 논문은 진정한 철학과 진정한 종교는 일치한다고 확신하며 신학적 문제들을 철학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트샬크(Gottschalk)의 "이중예정설"을 반박하기 위해 쓴 "신의 예정에 대하여"는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요하네스 스코투스는 과거의 이시도레(Isidore of Seville)와 알퀸(Alcuin)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신학체계를 혁신하고 마음의 공통관념을 탐색하는 수단으로서 논리학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요하네스 스코투스는 '관념과 실재의 관계'라는 논리학

적 변증법으로 중세 철학(신학)계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 문제에 접근하였습니다 11~14세기에 나타난 스콜라철학의 집대성은 요하네스 스코투스의 학술적 입장을 기반으로 일어난 사조였습니다

포르피리오스(Πορφύριος, 234~305)가 추상적인 용어로 제기한 반립명제들은 11세기 실재론(실념론, 實念論)과 유명론(唯名論)의 대립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실재론은 사물의 실재는 사물의 일반적 관념에서 얻어지며 감각으로 지각되는 사물은 외견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재론은 개별자의 중요성을 부정함으로써 영혼의 불멸과 신의 존재까지도 의심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유명론은 일반적 관념은 오직 명칭(meroe voces)이며 이것에 대응되는 실재는 존재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물 각각이 실재라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교리 및 성변화(transubstantiation) 교리와 충돌하는 모순된 교리라는 오류가 각각의 논리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셀무스Anselm of Canterbury, 1033~1109.4.21)와 로스켈리누스(Roscellinus, 1050경-1124경)는 실재론과 유명론의 입장에서 논쟁하며 중세철학은 발전하였습니다 안셀무스는 정통교회의 입장에서 신앙으로 발전하였고, 로스켈리누스는 회의 및 비판의 세속철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대립과 논리학의 발전속에서 학문은 진화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대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확대되었습니다

12세기 초, 샤르트르의 고등교육기관인 "수투디아 게네랄레"(SUTUDIA GENERALE)에서는 당대 고대문학석학 "베라느라 셀베스테르"가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칙과 규정이 모호했던 시기인데다 교원과 학자들의 수준 또한 천차만별이어서 대학교의 설립과 함께 많은 수투디아 게네랄레는 퇴조의 길을 갔습니다 파리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1200~)는 파리지역의 교수와 학생들의 연합(L'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 Parisiensis)으로 조합형태의 교육기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교원의 지명도에 따라 학교의 명성이 결정되는 제왕적 교수시대가 지나가고 학문적 전통이 학교의 명성으로 자리잡아갔습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무스가 베크교회(Saint-Julia-de-Bec)부설학교 교장을 겸직할때까지 베크는 파리보다 우위에 있는 교육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카페왕조(Capétiens, 987~1328)가 파리를 수도로 지정하면서 파리는 12세기 후반, 프랑스 제일의 교육도시로 부상하였고, 중세 프랑스철학의 대가이며 스콜라철학의 아버지 "피에르 아벨라르"(Pierre Abélard, 1079~1142.4.21)에 의해 파리대학교는 유럽 북부지역 최고의 명문대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피에르 아벨라르는 유명론의 대가 로스켈리누스의 제자였습니다 샤르트르와 파리의 노트르담에서 교육을 받은 피에르 아벨라르는 학문적 욕구충족의 목적으로 파리에 학교를 세우려 하였습니다 교회와 변증법 논쟁에서 크게 자신감을 얻은 피에

르 아벨라르는 교회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세속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피에르 아벨라르는 인문학 교원자격과 신학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노트르담대성당 부설 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피에르 아벨라르의 강의를 듣기 위해 유럽북부는 물론 남부지역에서 학생들이 몰려왔고 그의 명성은 당시 유럽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볼로냐와 파리에 집중된 교원과 학생들은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커리큘럼을 갖기 위하여 교육내용의 범위를 신학의 범주를 벗어나 다양한 과목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투디아 게네랄레"는 유럽 전역에서 '공부 장소'라는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수투디아 게네랄레는 고대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의 전통적이고 초보적인 학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조합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시도가 당시의 길드를 모방하여 생겨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초기에는 교원조합으로 부터 출발하였습니다. 1170년, 파리에서 강의중이던 셸라의 요하네스(Johannes of Cella)가 "저명한 교원 동호회"에 가입하였다는 측면에서 1170년대에 파리대학교의 전신과 같은 형태의 조직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학생들이 교원조합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대 유명한 석학의 제자로서 5~7년간의 도제생활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 후 추천서와 예비강의(probationary lecture)를 통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었으나 그 이상의 규정이나 정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2세기 후반 볼로냐의 학생조합은 도제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함으로서 교원조합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초기의 이러한 형태의 원시적 조직은 길드와 무역상인협회의 조직을 참고하거나 유사하게 적용한 측면이 강하였습니다.

볼로냐에 최초로 출현한 우니베르시타스는 학문적 권위를 가지지 않은 채 회원의 이익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롬바르디아, 토스카나, 로마, 울트라몬타나(Ultramontana)출신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형제애에 입각한 자선, 상호교유와 우의, 환자의 위문과 빈자의 지원, 장례의 수행, 원한과 싸움의 근절, 학위지망생의 안전과 보호, 전회원의 사기진작"은 볼로냐 우니베르시타스의 정관에 명시된 내용이었습니다.

조합은 사회적으로도 특혜가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교원조합원과 학생조합원은 모두 성직자로서 이들의 범죄행위는 일반 재판소가 아닌 교회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조합회원들을 특별계급으로 대우하며 특권을 부과하였습니다. 1158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Friedrich, 1122~1190)는 롬바르디아 내 학생들에게 "학자의 특권"을 부여하는 칙령 "AUTHENTUCA HABITA"을 발표

하였습니다 12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과 학생들간의 난투극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을때 존엄왕, 필리프 2세(Philippe II,1165~1223)는 프랑스 학생에게도 이탈리아와 유사한 특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자체에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성직자로서의 특권이었습니다

(1) 볼로냐 대학교

13세기, "우니베르시타스"는 "수투디아 게네랄레"(SUTUDIA GENERALE)가 연합하여 행정기능을 갖춘 법인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볼로냐에서 우니베르시타스는 권력기관과 잦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볼로냐에서 수학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외국의 귀족계급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이 볼로냐의 권력기관과 충돌하였을때 그들은 스스로의 이익집단을 형성하였고 그것이 연합형태의 법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3세기 중엽, 군소 우니베르시타스는 치트라몬타나 우니베르시타스(Citaramontana)와 울트라몬타나(Ultramontana) 우니베르시타스로 통합되었습니다 치트라몬타나는 이탈리아내 롬바르디아, 토스카나, 로마 출신 학생들의 우니베르시타스이며, 울트라몬타나는 프랑스, 독일, 영국 출신 학생들의 우니베르시타스입니다 이들은 회장을 선출하고 조직과 회장에 대한 복종을 맹약하였습니다 볼로냐 대학교의 특징은 여성교원의 등용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성학생들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남학생들과의 연애를 막기위해 상호간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1376년 학교내에서 댄스를 금하는 교칙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14세기 초, 치트라몬타나와 울트라몬타나는 통합되었고 대학행정기구로서 학교운영을 총괄하였습니다 문학부와 의학부 등 소수의 인원을 가진 수투디아 게네랄레는 통합 우니베르시타스에 소속되어 볼로냐 우니베르시타스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볼로냐에서 "우니베르시타스 회장"(rector)은 학생통제를 위해 사법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립은 학생이 연관된 사건에 시청,시의회를 상대로 회장이 권위를 앞세우며 시작되었으며 16세기 볼로냐대학교가 쇠락할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2세기, 볼로냐의 수투디아 게네랄레에서 교육과 학술은 박사조합에서 담당하였으나 반동적 박사들과 학생들의 수업거부 일탈행위로 학생들이 이웃도시로 이탈하게 되자 시의회는 교원 우니베르시타스 회장의 출교(黜敎) 압력으로 맞섰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학생 우니베르시타스 회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강좌 운영권과 개설권, 교원제명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13세기 후반, 학생주도의 볼로냐 우니베르시타스는 스스로 붕괴하였습니다 파리지 당국은 명문학생들을 유치하고 대학교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박사들에게 정기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대학교개혁위원회(Board of Reformatores studii)를 구성하고 교원의 임면권과 대학행정, 학사운영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18세기, 격변기에 접어들면서 볼로냐 유니베르시타스는 찬란한 명성을 뒤로한채 역사속에서 쇠퇴의 길을 걸으며 사라져 갔습니다.

(2) 파리대학교

프랑스 파리대학교의 발전은 볼로냐와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리대학교의 중심은 문학부 학생들로서 이들은 상류층 계급의 자녀들도 아니었고 사회경험도 없었습니다. 파리대학교의 체제 확립은 노트르담 사원장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3세기, 교원조합과 노트르담사원간의 갈등은 노트르담 대성당 부설학교의 권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트르담사원장은 부설학교의 교장을 역임하며 파리 교육계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모든 교원은 노트르담 사원장이 발급하는 교원자격증을 필수로 하였으며 사원장은 발급과 효력정지의 권한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 내 교원과 학생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파리대학교 교원들은 노트르담사원장의 교원발급과 효력정지권은 인정하였으나 교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교원에게 일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원조합은 노트르담사원장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파리대학교의 교원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교원조합의 가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트르담사원장의 성직권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하여 모든 교원들에게 복종서약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리대학교 교원조합은 이에 불복하고 교황 인노첸시오 3세(Innocentius PP. III,1198~1216)에게 제소하였고 교황은 복종서약이 권한의 남용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1212년, 교황은 교지를 통하여 노트르담 사원장은 교원과 교원조합에 복종 서약을 강요할 수 없고 노트르담 사원장은 교원조합에서 제출하는 명부의 모든 신규 교원에게 자격증을 발부해야 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서 노트르담 사원장의 영향력은 문학부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기관들은 파리대학교 운영정관을 변경하는 등 여러가지 통지조치를 취하는 결정들을 하였으나 교황에 의해 모두 파문되고 노트르담사원내의 교원감육은 폐쇄되는가 하면 교황의 인준없는 대학교 파문은 모두 위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229년, 파리 시민과 대학생들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파리대주교의 묵인속에 프랑스 국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들은 사건 직후 강의를 중단하고 대학교를 자진 폐쇄하는 강

경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많은 교원들이 잉글랜드 옥스퍼드 대학교로 이주 하였고, 일부는 프랑스내 신생 대학교로 전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교황 그레고리오 9세(Gregorius PP. IX,1227~1241)는 교원의 입장에서 파리대학교와 파리교회 당국간의 중재를 하며 1231년 "학문의 모체"(Parens Scientiarum)라는 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원들은 강의 거부권을 통해 교원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교원들이 파리대학교의 규정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그 규정을 구성원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노트르담 사원장의 사법권은 더욱 약화되어 형법적 권한은 완전히 소멸되었고 민법과 종교적 사법권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13세기 중반, 도미니코 수도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로 구성된 탁발수도회 양대 교단의 성장으로 파리대학교내 신학교원의 임용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황 알렉산데르 4세의 후임 교황들이 그 권한을 취소함으로써 탁발수도사들의 권한 또한 소멸되었습니다. 13세기, 파리대학교는 교회기관들과의 투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직과 체계를 완성도있게 구성하였습니다. 13세기 초, 학부별로 느슨하게 구축되어 있던 교원과 학생조합은 13세기 말, 개별학부 협의체가 구성되고 문학부의 학장이 대학교의 총장을 겸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트르담 사원장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여러개로 나뉘어 있던 교원 유니베르시타스들이 하나로 통폐합 되었고 학사학위과정을 담당하는 문학부 교원들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학부 교원들은 볼로냐대학교의 법학선례를 따라 프랑스, 노르망디, 피카르(네덜란드), 잉글랜드 등 국가별로 4개조직으로 규합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유니베르시타스의 임원과 문학부 학장이 문학부의 정책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위상과 권한에서 7개의 유니베르시타스를 관장하는 총장을 겸하였습니다.

파리대학교의 문학부는 1215년, 문학학위과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파리 대학교에서의 7자유교과는 본래의 7자유교과와 매우 상이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7자유교과 중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입문"(On Aristotle's Categories)을 주교재로 사용했고 문법은 "프리스키아누스"(Priscianus)의 논문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학과 철학은 교양과목으로 여겨져 휴일이나 국경일에만 이루어졌습니다. 수사학 교재로 지정된 문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대수학, 기하학, 음악학, 천문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4세기, 문법, 논리학, 심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사과정"(Baccalaureate)과 자연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자격과정"(Licence), 그리고 도덕철학과 고급자연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임용과정"(Mastership) 등 3단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한 문법교원과 논리학교원과의 논변, 대학당국의 테스트, 결정과정의 주제논문 등 학사학

위에 대한 절차가 복잡해지고 학사학위 이후에도 후속강좌 등 계속되는 논쟁과 강의들로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교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사학위의 절차는 더욱 더 세분화되어 대학교의 체계는 자리를 잡아 갔습니다.

파리대학교는 볼로냐 대학교와는 달리 교황과 국왕의 지원속에 발전을 가속화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칼빈(Calvin)과 반종교개혁의 총수인 로올라(Loyola)가 파리대학교의 출신인 점에서 유럽 최고의 명문을 자랑하고 오늘에도 여전히 세계적 명문으로서 그 위상과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3. 신비주의 운동

신비주의(神秘主義, mysticism)는 종교적영향 뿐만 아니라 철학과 역사와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이르는 폭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영역에서 중세시대에 수도원을 중심으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신비주의는 절대적인 존재와 고차원적 단계로 도약하여 합일되는 체험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중세 스콜라신학의 발전과 함께 신학사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스콜라신학이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면 신비주의 운동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신비주의 운동은 종교개혁의 기원이 되는 첫번째 운동이었습니다. 중세 카톨릭교회의 부패와 비성경적 행위에 대한 반발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art), 클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요한 타울러(John Tauler) 등을 중심으로 신비주의운동은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신비주의 운동은 현재의 삶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직접적인 교재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욕을 통한 성결보다 명상과 기도생활, 교육과 설교를 통하여 보다 성숙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되 율법적인 구약보다 새계명의 신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약을 중심으로 생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례와 사제생활 가운데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움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교와 교육은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로 하며 성직자와 평신도간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음으로서 공동체를 강조하였습니다.

(1) 마이스터 엑카르트(Johannes Eckhart, Meister Eckhart,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요하네스 에크하르트, 1260년경-1327년경)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로마카톨릭신자이면서 독일의 신비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엑카르트는 1260년, 독일 튀링겐의 코타 인근 호흐하임에서 태어났습니다. 15세 전후 도미니크회에 가입하고 쾰른의 도미니크회수도원에서 신학자이며 철학자로서 당시 스콜라철학의 대가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 1193~1280)로부터 수학하였습니다. 1302년 파리대학교로부터 마기스테르의 칭호를 받았으며 1304년 작센도미니크회의 관구장이 되었습니다. 1313년, 3부작을 쓴 후로 설교에 전념하였으나 프란체스코회로부터 이단이라는 불명예를 얻었고, 1329년 교황 요한 22세로부터 이단으로 확정되어 정죄되었습니다.

엑카르트는 말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체험하는 관상(觀想)과 정적(靜寂)과 무(無)의 경지에 관심이 많았으며 하나님과의 합일(合一)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성과 감각으로 알수 없는 무한한 광야같은 분이며 무한 그 자체라고 엑카르트

는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소나(Persona,神格)를 초월한 하나님, 곧 신성(神性)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게 집중할때에 핵심은 인간 영혼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무(無)로 돌려 하나님의 무(無)와 합일(合一)하면 이로서 인간은 완전한 자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플라톤주의와 마틴루터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2) 요한 타울러(John Tauler,1300~1361)

요한 타울러(John Tauler)는 1300년,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태어나 1315년에 도미니크회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쾰른과 파리에서 유학한 타울러는 엑카르트(John Eckhart)의 제자로서 1339년 이단자 파문의 소용돌이속에서 바젤로 도피하였습니다. 타울러는 신우단에 가입한 후 신비주의에 심취하였고 엑카르트의 영향을 받아 신비주의 설교자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타울러 사상의 중심은 "인간 심령속에 신의 내재"라는 교설입니다. 타울러는 인간 생활의 세가지 인격으로 "감각성, 이성, 제3의 인격(영적생명, 심령의 순수한 실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타울러의 생각은 "세개의 인격은 밖으로 현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포함되어 있다. 아들은 모든 형상의 참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영원의 합리적 형상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기를 말망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비주의적 영적 향상의 3단계를 설명하는 타울러는 첫째, 우선 자제를 연습해서 우리의 모든 저속한 욕망이 최고의 이성(神性)에 의해 통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서 쉬듯이 우리도 열심히 그것을 정관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슬픔이나 기쁨은 그리스도의 그것과 동감동명(同感共鳴)이 된다는 것입니다.

14. 종교개혁을 향한 회의

(1) 중세교회사(590~1517년)

① 로마교회 초기시대(590-800) : 과도시대 선교 발달기

590년, 교황 그레고리 1세 즉위(최초 교황 칭호 사용)

622년, 모하메드가 메디나로 도주하여 이슬람교 창설

637년, 이슬람교의 예루살렘 점령

680년, 콘스탄티노플 3차회의(일의론 정죄, 이의론 채택)

787년, 니케아 2차회의(성화숭배 결정)

② 로마교회 성장시대(800-1073) : 동서교회 분리기

800년, 교황 레오 3세가 샤를마뉴에게 로마 황제의 제관 수여

869~879년, 콘스탄티노플 4차 회의(성령출처 문제로 포티우스 파면, 이오니우스 채택)

910년, 클루니 수도원 개혁 시작(10세기)

962년, 교황 요한 12세가 오토 1세에게 대관식(신성 로마제국)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리

③ 로마교회 전성시대(1073-1303) : 그리스도교 실생활기

1073년, 교황 그레고리 7세 즉위(힐데브란트)

1071년, 셀주크 터어키가 예루살렘 점령

1077년, 카놋사의 굴욕(독일 헨리 4세가 그레고리 7세에게)

1095년, 클레멘트(클레르몽)회의 (십자군 결정)

1096년, 스킨라 철학의 시작

1096~1270(11C-13C)년, 십자군 전쟁(8회, 약 200년간)

1122년, 워스 협약

1215년, 로마 라테란 회의(화체설 채택, 인노센트 3세), 영국에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발표,

④ 로마교회 쇠퇴시대(1303~1517년) : 종교개혁 전초기

1303년, 교황 보니페우스 사망

1309~1377년, 교황청의 바벨론 포로(클레멘스 4세~그레고리 11세, 아비뇽 유수, 70년간)

1350~1650 (14C~17C)년, 문예부흥(약 300년간)

1382년, 존 위클리프 성경을 영어로 번역

1409년, 피사회의(두명의 대립교황 폐위, 알렉산더 5세 세움)

1414~1418년, 콘스탄스 회의(세 교황 면직, 마르틴 5세 세움)

1431년, 바젤 회의(훗스파와 화협 체결)

1438~39년, 페라리 회의 - 플로렌스회의(동서교회 합동문제)

1453년, 동로마의 멸망(콘스탄티노플 함락, 오스만 터어키에 의해)

1504년, 존 칼빈 탄생(~1564, 55세)

⑤ 종교개혁시대(1517~1648년) : 신교 발생기

1517년, 종교개혁 시작(루터의 95개 조항 : 34세)

1521년, 워스 국회(루터 재판)

1529년, 슈파이에르 국회(프로테스탄트(Protestant)란 용어가 처음 사용됨)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문 작성(멜랑톤 기초)

1534년, 영국 국회 수장령 통과

1536년, 칼빈

종교개혁을 향한 첫걸음은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지속 되어 온 과제였습니다. 종교개혁의 필요성은 초대교회를 시작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과 조직들 가운데에 발생한 성경에 대한 훼손과 오염, 그리고 교회의 타락과 부패함이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교황중심의 절대권력화된 교황권과 권력으로 오염된 금권문제였습니다.

(1) 피사회의(1409)

1303년, 로마교황 보니페우스가 사망한 이후 로마교회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클레멘스4세가 교황으로 즉위한 후 그레고리 11세에 이르는 70년간 바벨론 포로생활이 이어졌고, 이른바 르네상스 부흥의 시기도 이 시기에 출현하며 3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409년에 개최된 피사회의는 교황들이 불참한 가운데 파행을 거듭하였으며, 교회분열의 책임을 이유로 우르반6세와 대립교황인 클레멘스 7세 등 두 교황을 폐위하고 알렉산더 5세를 새 교황으로 옹립하는 절차를 무리하게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황은 3명으로 늘어났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채 교황은 계속해서 로마와 아비뇽의 대립교황으로 양분화 되며 회의는 종결되었습니다.

(2) 콘스탄스 회의(1414~1418)

1414년, 피사회의 이후 5년만에 이어진 콘스탄스 회의는 1418년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그레고리 12세와 요한 23세, 그리고 베네딕트 13세 등 세명의 교황이 난립하는 대분열(Great Schism)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스회의에는 "종교회의 운동이론"(conciliar movement)을 주장하는 프랑스의 장 제르송, 피에르 달리를 비롯하여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투표권이 있는 각 나라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콘스탄스 회의는 교회 감독들의 각종 폭로전이 극에 달하는 현상으로 감독들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대신 국가 단위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파행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콘스탄스 회의는 모든 교황들이 불참한 피사회의와 달리 그레고리 12세, 요한 23세, 베네딕트 13세 등 세 명의 대립교황과 신성로마제국 황제 지기스문트 (sigismund,1433~37)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나 이들 모두에 대하여 교회의 분열 조장과 교회개혁에 부적절한 정치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파직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지도체제를 공고히 하고 교회의 개혁을 이어 나가기 위하여 마틴 5세(Martin V)를 로마의 통일된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콘스탄스 회의에서 당대 최고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Jan Hus, 약 1396~1415년 7월 6일)가 존 위클리프의 제자라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 졌으며, 아울러 제롬 (Jerome of Prag)과 폴란드에서 활동하던 튜턴 기사들(Teutonic Knights)과 같은 이단문제들을 논의하고 국가들의 정치적 사안들을 해결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인 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함으로써 그의 저서를 불태우고 그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어 화형하는 끔찍한 장면도 연출함으로써 이단에 대한 경계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콘스탄스회의는 교회문제의 개혁의제 보다 국가적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가회의에 가까운 입장을 견지하며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스회의는 교회의 권위를 교황의 권위보다 높은 것으로 잠정 결의하였고 교회개혁을 이어가는 도화선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3) 바젤회의(1431~1449)

1431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제3차 회의는 세계교회 일치를 위한 "공의로운 평화"라는 주제로 638명의 카톨릭교회 감독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 시작부터 교황우위론자들과 교회우위론자들간의 권력분쟁으로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교황 에우제니오4세(1431~1447)가 정회를 선포하고 1433년에 다시 개최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존 위클리프의 교리를 추종한 종교개혁자 존 후스(John Huss)의 순교이후 보헤미아 지방의 불안은 계속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개조 협정이 1433년 체결되었습니다 즉, 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원할때에는 떡 이외에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② 성직자의 죄는 오직 성직자의 모임에서만 판단을 받고, ③ 설교의 권한은 감독이 부여하며, ④ 성직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청지기로서 사용할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구마다 일년단위로 대회를 개최하고 대교구회의는 격년제로 개최함으로써 교권의 남용과 성직자들의 타락여부를 심의하고 시정토록 하였으며, 총회는 10년을 주기로 개최하여 교회의 당면과제들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직자의 독신주의와 연극과 오락을 금하며 도박, 댄스, 나체 미술전을 규제하고 마리아의 무흠설을 확인하는 교리적 연속성을 회의는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교황의 전제권을 제한하고 교황청을 위한 징세를 제한하며 추기경을 24명으로 축소하는 등 바젤 회의의 성과는 여러가지 제도의 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1438년, 페라리회의(Ferrara Council)는 교황 에우제니오 4세를 중심으로 교황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헬라교회에 대한 원조를 논의하고 헬라교회와의 연합을 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터키군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헬라교회가 서방교회의 원조를 요청하면서 합의해 준 일련의 상호보완적 회의체였습니다

이듬해인 1439년, 플로렌스(Florence)회의는 동서교회 합동을 논의하고 4개조항에 합의하는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① Filioque문제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온 바이나 본질적으로는 한 근원과 원인으로 부터 나온다"고 정의하였습니다 ② 연옥문제는 연옥은 인정하되 동방교회의 주장에 따라 정화를 위한 연옥의 불이 물질적인 불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③ 성찬식의 떡은 누룩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가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화채설에 대하여는 죄의 고백은 구두에 그치고 문서적 고백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④ 교황의 권위문제는 로마 교황이 세계 교회의 대표적 최고 지도자이며, 베도로의 후계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회의 머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와 교사로서 세계교회를 치리할 권한에 동의하였습니다

1443년, 예루살렘 회의는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의 대감독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플로렌스회의를 부인하는 결의를 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1448년, 스위스 로잔회의는 에우제니오 4세의 후임으로 니콜라스 5세(Nicholaus,1447~1455)를 유일한 합법적 교황으로 추인하고 모든 회의는 종결되었습니다

15. 르네상스 문예부흥(Renaissance,文藝復興)

르네상스(Renaissance), 즉 문예부흥(文藝復興)은 14세기 중엽, 오스만투르크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1453년)을 기점으로 발생하여 16세기 중엽, 유럽열강들의 아메리카 대륙진출과 종교개혁에 이르는 유럽의 학예부흥운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페인으로 확산되었고 중세시대를 마감하며 근세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시대정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탈리아어로 "Rinascimento"라는 어원을 가진 르네상스(Renaissance)는 프랑스 역사가인 미술레가 프랑스어 "Renaissance"로 개념을 확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재생(再生, rebirth)이라는 의미로 고전의 재발견과 유럽문화의 혁신을 가져온 근대화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정치,문화적 세계 중심기였을 때에는 르네상스를 하나의 혁명적 진전으로 보았으나 세계의 중심이 아메리카대륙과 아시아로 전달될 때에는 과학적 진보가 지연되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습니다.

(1)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탈리아는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종교적, 세계적 위상을 자랑하며 이슬람 세계와 비잔틴 세계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세기 이후 십자군전쟁과 상업의 발달로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13세기에는 로마법과 정치제도와 같은 통제기능의 합리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탈리아 중부 피렌체 출신의 단테는 "신곡"이라는 대표작을 완성하며 종교문제의 도화선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지옥과 연옥의 가이드로 하여 영혼의 정화를 통해 천국으로 승천할 수 있다는 탈종교적 가치를 대서사시로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단테는 "신은 죽었다"는 충격적인 메세지로 당시의 카톨릭적 세계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탈리아 시인이자 인문주의자인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는 역사가 종교적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진보로서 인간이 시대의 중심이라는 휴머니즘적 선언을 하였습니다.

르네상스는 신관을 위협하며 휴머니즘적 사고를 지향하는 하나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주장과 혁신이었습니다. 이것은 14세기, 교회와 이슬람 세계, 동로마제국의 고전 문화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 시기에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와 같은 세계석학들이 함께 르네상스를 주도하며 나아 갔습니다.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의 철학자이자 세계적 건축가인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1404~1472)는 밀라노 산프란체스코성당과 피렌체 산타마리아 노베를라성당을 건축하면서도 "인간은 모든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으로 당시 사회를 혼란에 빠

뜨리기도 하였습니다

15세기, 나체조각상은 새로운 문화의 도전과 함께 카톨릭신관에 맞서는 또다른 파괴적 공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이 만물의 척도인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사상과 세계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보편타당하게 주어졌으며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적 사관들이 유연하게 형성되어 갔습니다 사실주의적 사관은 르네상스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이고 분석적이며 신의 질서보다 인간의 역사에 접근된 사실적 표현들이 나체상과 함께 과감하게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피렌체, 밀라노, 로마, 베네치아 등의 대도시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과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은 르네상스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예술과 문화는 쇠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베드로대성당의 건축으로 이탈리아에는 많은 유명 건축가들이 몰려오는 전성기가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는 부흥기라기 보다 정치적 갈등과 전쟁이 계속된 시대였습니다 궁정과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발전은 일반인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으로 국민들은 미신과 마술에 심취해 있었고 로마를 비롯하여 각각의 소국들이 난립하는 정치사회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5세(Nicolas V,1447~1455)는 교황청내 바티칸도서관을 설립하여 학자들의 학문적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파이우스 2세(Pius II,1458~1464)는 고전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식스투스4세(Sixtus IV,1471~1484)는 미켈란젤로와 함께 성당의 천정화를 완성토록 하였습니다 줄리어스 2세(Julius II,1503~1513)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함께 베드로성당을 중건하였으나 레오 10세는 성당건축비 충당을 위하여 면죄부판매를 강행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600년, 우주의 무한성을 주장한 이탈리아의 사상가이며 철학자인 지오다노 브루노((Giordano Bruno 1548~1600)는 도미니크회의 수도사로서 우주의 무한성을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하고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며 종교재판을 받는 등 르네상스의 진전은 종교적 저항에 부딪혀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로마 카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바로크시대가 열리는 등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유럽의 르네상스

프랑스는 1495년 샤를 8세의 이탈리아 정복후 르네상스를 맞이하였으며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도 이 시기에 건축된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바이에른에서 시작하여 알브레히트 뒤러의 "아담과 하와"등과 같은 걸작품들을 완성하며 르네상스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1450년, 인쇄기의 발명으로 라틴어 성경을 연구하는 작업이 가시화되면서 1471년에는 이탈리아어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되었습니다 1477년에는 프랑스어 성경이 출판되었고 1478년에는 스페인어 성경이, 1488년에는 보헤미안어 성경이 출판되었으며, 1521년에는 독일어 성경이 18권이 발행되는 등 놀라운 보급이 있었습니다

이와함께 프랑스에서는 성경학자 르페브르(Jacques Le Fevre,1455~1536)가 1512년에 바울서신 주석을 출판하였고, 로이히린(John Reuchlin,1455~1522)은 라틴어사전을 편찬하였습니다 영국의 콜렛(John Colet,1467~1519)은 옥스퍼드 대학의 개혁자이며 런던 바울교회 주임신부로서 아퀴나스신학을 비판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1469~1536)는 교부신학 연구의 석학으로 성서인문주의자 가운데 영향력있는 대학자였습니다

폴란드에서의 르네상스운동은 지동설을 주장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와 시인 코하노프스키 등이 주도하며 15~16세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반 에이크 형제와 브뤼겔과 같은 화가들이 주도하며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돈키호테로 유명한 세르반테스와 화가 엘 그레코 등이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루며 이어 나갔습니다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루던 이탈리아는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화두로 인하여 그 막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포르투갈인이 인도양으로 나아가는 해로를 발견하고 아메리카대륙에 상륙하는 등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업적 무역자본과 종교의 방향성은 보다 더 큰 미지의 대륙과 투자로 이어졌으며 이탈리아의 힘은 급속히 약화 하며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예고 하였습니다

16. 종교개혁(宗教改革, Protestant Reformation)

종교개혁은 1517년, 당시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신부가 로마 카톨릭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95개조항의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회정문에 게시하면서 시작된 새로운 혁신의 신학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으로 로마카톨릭교회는 루터교, 침례교, 성공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와 동방정교회로 분리되었으며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성경도 독일어로 번역되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마틴 루터의 개혁운동은 스위스의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와 존 칼빈(Jean Calvin, 1509~1564)으로 이어졌으며 존 칼빈의 제자 존 녹스(John Knox, 1514~1572)가 스코틀랜드에서 개혁교회(Reformed Church) 신학을 전파함으로써 장로교를 창설하였습니다. 1549년,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토머스 크랜머(Thomas Cranmer, 1489~1556)는 성공회 기도서를 만들고 영어성경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공회 신앙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영향은 르네상스 문예부흥(Renaissance, 文藝復興)으로 이어졌고, 신학의 시녀에 지나지 않았던 철학은 자연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독자적인 사상으로 진일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신앙적 차원에서 강도높은 화형으로 맞서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회를 창설하여 교회개혁과 해외선교에 적극 나서는 등 강온 양면적인 정치행위를 이어 나갔습니다.

(1) 5대 솔라(Five Solas)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사상은 5대 솔라(Five Solas)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의 대전제이며 불변의 원칙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며 모든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함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로마 교황청에서 발급하는 면죄부와 속죄표와 같은 것이 전혀 필요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①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 진리에 대한 최종적 권위는 오직 신구약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기독교 교리이며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 ②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 인간에게 있어서 스스로 구원할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총을 입는 길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③ Sola Gratia (오직 은혜) :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조건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총을 입는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위에 대한 댓가나 보상이 아닙니다
- ④ Sola Fide (오직 믿음) :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른 요구나 댓가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 ⑤ Soli Deo Gloria (오직 주께 영광) : 사람의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께 있고 사람에게에는 주님의 은총이 있을 뿐입니다

(2) 종교개혁의 원인

종교개혁운동은 사회변혁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양심과 자성에 의한 교회개혁과 혁신운동이었습니다 마틴루터와 존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사회정의와 국가개조를 위해서 개혁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불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95개조항이라는 반박문을 대자보로 게시한 것입니다

① 도덕적 요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를 면죄부와 속죄표로 장사 하는 대표행위를 극악한 비성경적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면죄부와 속죄표는 교황청의 부패와 부정이 극에 달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청년 마틴 루터의 양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직매매가 성행하고 성적(性的)으로도 음란과 방탕이 심하여 사제와 수녀간에 성관계로 인한 사생아가 생기는 등 도덕적 문란이 만연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부터 지탄을 받게 되자 일부 사제와 수녀들이 교회개혁을 교황 바오로 3세(Paulus PP. III,1534~1549)에게 정식문서로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② 지적인 요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유럽 전역에 걸쳐 지적인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고전문학에 대한 회고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변화, 몽고제국 징기즈칸의 침략으로 인한 동서양의 문화적 교류와 증진, 근대화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봉건제도의 붕괴현상, 상업도시의 발전과 민주적 도시의 태동, 스콜라철학의 퇴조와 오캄의 신학 사상의 부활 등 중세 유럽의 기조는 사상적 변화와 함께 근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인문주의가 득세하며 새로운 학문을 주도하였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의 뒤를 이은 속사도와 교부들의 신학을 탐구하거나 히

브리어와 헬라이어 연구를 통한 성경적 접근의 길을 신학자들은 모색하였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서 중세의 지식사회는 개신교를 근간으로 하는 성경적 휴머니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③ 사회적 요인

십자군 운동 이후 봉건사회가 급격히 붕괴하면서 농업중심의 경제가 상업경제로 연결되는 과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상업의 발달은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게 되고 유입된 인구를 위해 도시건설과 함께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도시는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교회가 국가의 통치구조 아래 놓여지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309년, 바빌론 유수라고도 일컬어지는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幽囚)로 인하여 교황권은 바닥에 떨어졌고, 교황청이 부과하는 조공의 인상과 아울러 교황청의 부패와 사치는 교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마틴루터의 종교개혁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7. 마틴 루터(Martin Luther,1483~1546)

1483년11월10일, 독일 작센안할트주 아이스레벤에서 한스 루터(Hans Luther)와 마가레테 린데만 (Margarethe Lindemann) 사이에서 출생
1501년, 에르푸르트대학교 입학
1502년, 에르푸르트대학교 문학학사
1505년, 에르푸르트대학교 문학석사
1505년, 어거스틴수도회 "검은 수도원" 입회
1507년, 수사신부, 비텐베르크대학교 수학, 성서학 교수사제 임명
1510년, 로마방문
1513년,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연구, 비텐베르크대학교 교수
1515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감독, 11개지역 수도원 설교자 활동
1516년, 설교중 면죄부 판매 비난
1517년10월31일, 비텐베르크대학교 성자교회정문 "95개논제"대자보 게시
1518년10월12일, 교황청 소환, 교황의 권위에 순종할것에 대하여 거부함
1520년6월24일, 교황청 교서, 《Exurge Domine》(주여! 일어나소서!)를 통하여 루터에게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경고 하였으나 거부
1520년12월10일, 교황의 교서와 로마교회법전의 화형식을 거행함
1521년1월3일, 교황의 교서 《Decet Romanum Pontificem》(로마 교황은 이렇게 말한다)를 통하여 마틴루터를 최종적으로 파문함
1521년4월16일, 카를5세 황제 마틴루터 신변보장약속후 청문회출석,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음,
보름스칙령을 통하여 로마법에서 추방된자로 규정, 법적 보호밖에 있음을 선포함,
파리대학교, 루뱅대학교, 콜로뉴대학교 신학부로 부터 정죄당함,
1522년9월, 독일어 성서번역본 '9월 성서(Septemberbibel)' 출판하여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함
1525년6월13일, 42세때 전직 로마카톨릭교회수녀인 카타리나 폰 보라(1499~1552)와 결혼
1546년2월18일, 향년63세로 아이슬레벤에서 사망
저서, 로마서강의(1516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1520년)

1483년11월10일, 마틴 루터는 독일 작센안할트주 아이스레벤(Eisleben)에서 광산업에 종사하였던 부친 한스 루터(Hans Luther)와 모친 마가레테 린데만 (Margarethe Lindemann) 사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마틴루터는 카톨릭교회의 모태신앙인으로 자라났으며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1501년, 부친의 권유로 명문 에르푸르트 대학교 교양학부에 입학한 마틴 루터는 이듬해 인 1502년 9월에 문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1505년 1월에는 문학석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에르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공부를 하고 있던 기간 중 슈토테르하임에서 일어난 낙뇌로 인하여 함께 있던 친구가 사망하자 충격을 받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던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502년 7월17일, 에르푸르트의 "어거스틴 은둔자 수도회" 소속의 "검은 수도원"에 입회하여 수사 신부가 되었습니다.

검은 수도원에 입회한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대학교 교수직과 수도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요한 스타우피츠(Johann Von Staupits) 교수의 추천으로 비텐베르크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게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텐베르크 대학교 요한 스타우피츠 교수는 성경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게 연구하면 문제의 답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스타우피츠 교수는 마틴 루터를 성서학 교수 사제로 임명하고 칭의론에 대하여 보다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1510년, 로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1513년,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로 취임한 마틴 루터는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연구에 심취한 가운데 1515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감독으로서 산하 11개 수도원에서 설교자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X는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비 마련을 위해 속죄권 판매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속죄권 판매촉진을 위해 지방감독과 판매책임자, 그리고 교황청이 함께 수익을 나누는 부정부패가 공식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면죄부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일급성사 가운데 하나인 고해성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제는 참회하는 고해자의 고백을 듣고 죄를 사한 후 죄에 대한 보속으로 순교, 시편 낭송, 특별기도 등을 명하였는데 면죄부는 이와같은 보속을 면죄해 주는 증서로 사용되었습니다. 고해자를 위한 좋은 의미로 시작된 면죄부가 보속의 취지와 달리 카톨릭교회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교황청은 부패하기 시작하였고 면죄부 영업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금화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로 영혼은 연옥을 벗어나 천국을 향해 올라갈 것"이라는 기만정책에 수많은 성도들이 현혹되어 구원에 이르는 길을 금전으로 구매하는 극악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작고한 부모의 죄까지 면하기 위한 면죄부의 구입열은 판매량을 증대시키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1) 면죄부와 95개 논제

1516년 10월31일, 마틴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1517년 2월에는 한층 더 강도높은 비난으로 교황청의 부패척결을 주장하였으며, 10월31일, 제성기념일 전야에는 비텐베르크 대학교내 성자교회 정문에 "95개 논제"를 담은 충격적인 대자보를 게재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서막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 ① 면죄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속할 수 없다 :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실 때 모든 성도들의 전생애가 참회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다(논제1조)
- ② 면죄부는 죄의 형벌을 전혀 면할 수 없다 :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비교할 대상이 전혀 아니다(논제68조)
- ③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할 수 없다 : 그리스도인은 면죄부와 같은 행위의 의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논제95조)
- ④ 면죄부로서가 아니라 회개한 자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는다 : 면죄부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참 보고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다(논제62조)

마틴 루터의 95개 논제는 대량으로 인쇄되어 독일 전역으로 급속히 번져 나갔으며 전 유럽에도 내용이 전해 졌습니다. 1518년 4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독일분회에서 개최된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마틴 루터는 고난과 십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십자가 신학"을 발표함으로써 로마 카톨릭교회의 "영광의 신학"을 정면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십자가 신학은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로마 카톨릭의 영광의 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성경에 기초한 진리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영광의 신학은 신학이 아니며, 그리스도도 모르고, 십자가의 가치도 모르는 무지라고 마틴 루터는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광의 신학을 신앙하는 로마 카톨릭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권위와 권력에 맞서는 마틴 루터의 주장은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1518년 10월12일, 아우크스부르크로 소환당한 마틴 루터는 카예탄 추기경(Cajetan, 1469~1534)의 심문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카예탄 추기경은 면죄부에 대한 교황의 교령(Unigenitus, 1343년)을 근거로 면죄부를 승인한 교황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마틴루터는 교황보다 공의회가 상위이고, 교회보다 성경이 상위이며, 죄인인

사람보다 하나님을 상위라는 것을 주지하며 순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예탄 추기경은 프레데릭 선제후에게 영지로 부터 추방하거나 로마로 압송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선제후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2) 라이프치히 논쟁

1519년 7월, 라이프치히에서 마틴 루터는 잉골슈타트의 라이프치히 대학교 교수인 엑크(John Eck)와 함께 신학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동료 신학자인 칼슈타트(Calstadt)와 함께 열흘 이상을 논쟁하며 교황의 무류설을 지적하고, 체코의 종교개혁자 후쓰를 정죄한 콘스탄스 공의회(1414~1418)를 비난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에베소서 2:20에 근거하여 교황도 우리와 같이 오류가 있고, 교회도 과오를 범할 수 있으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교황과 로마교회앞에서의 순종"(Romana obedientia)보다 보편적 교회(Catholic Church)를 주장함으로써 공의회의 권위마저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1520년, 라이프치히 논쟁을 계기로 로마 카톨릭 교황 레오는 《Exurge Domine》(주여! 일어나소서!)라는 교서를 통하여 루터의 작품과 설교내용 중 41개 조항을 지적하며 이단적이고 위법적이며 거짓이라고 단죄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책들은 루벵에서 모두 불태워졌고 동료들과 함께 파문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1520년 12월10일, 비텐베르크대학교 엘스터교문앞에서는 마틴 루터의 저서 화형식에 맞서서 교황의 교서와 로마교회 법전에 대한 화형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는 교황청을 지지하는 라이프치히대학교와 정면으로 대립하며 로마 카톨릭으로 부터 이단으로 규정받고 파문을 당하였습니다. 1521년 1월3일, 《Decretum Romanum Pontificem》(로마 교황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교황의 교서를 통하여 마틴 루터를 공식적으로 파문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개혁과 성경과 진리로의 복귀를 주장하였던 마틴 루터의 진정성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회개를 거부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부패와 부정을 옹호하고 강화하려는 의지를 더욱 드러냄으로써 화해의 길은 영원히 멀어져 갔습니다.

(2) 보름스 논쟁

1521년, 마틴 루터에 대한 교황의 파문에도 불구하고 프레데릭 현자를 비롯한 독일의 영주들은 보름스 국회에서 마틴 루터의 변호에 대한 기회를 허락하였습니다. 카를5세 황제는 마틴 루터에 대한 신변보장을 약속하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1521년 4월16일, 마틴 루터는 보름스 국회의 청문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트리에르 대주교

의 고문관은 마틴 루터에게 2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① 당신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은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② 당신은 이 책들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답변은 하루 뒷날 이어졌고 그의 주장과 선언은 철회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바르트부르크성에서 10개월 동안 은신하며 위협으로 부터 안전을 지켰습니다

카를5세 황제는 보름스 칙령을 통하여 마틴 루터를 로마법의 보호로 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마틴 루터는 파리대학교, 루뱅대학교, 콜로뉴대학교의 신학부로 부터 정죄당하고 교수직도 파면당하였습니다 1522년 9월, 바르트부르크성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던 마틴 루터는 신학논문 저술과 함께 신약성경에 대한 독일어 번역과 출판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독일어성경은 독일 기독교인들을 카톨릭교회의 우월적 권위와 탐욕으로 부터 해방하는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됨으로서 독일국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들 스스로의 지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회의 제공이었습니다 이로서 성직자들이 스스로에게 맞춰져 오류된 성경을 전하여도 알 수 없었던 성경적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됨으로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상과 부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성에서 성경에 심취되어 있는 동안, 비텐베르크대학교 교수인 칼슈타트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폭력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만찬에서 평신도들에게는 거부되었던 포도주가 지급되고, 혁신적인 예배양식과 예복이 도입되었으며, 성상들은 교회에서 제거되어 화장되었고, 로마 카톨릭 미사를 드리던 수도사들은 돌에 맞는 소요가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의 철학과 가치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소요가 끊이지 않자, 마틴 루터는 1522년 3월6일, 비텐베르크로 돌아와 말씀만이 역사한다는 설교를 8일동안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학생들과 군중들의 소요는 잦아 들었고 평화와 질서는 회복되었습니다

(3) 개혁의 원리 : 하나님의 말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7년에서 1520년에 이르는 4년 동안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단절과정을 거치면서 민중운동과는 차별화하였습니다 칼슈타트, 토마스 뮌처(Thomas Müntzer, 1489~1525) 등과 같은 혁명적 신학자와 농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적 개혁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또한,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와 같은 인문주의자들과도 신앙적 차별화를 선언하며 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복음이 인문주의와 사회운동과 뒤섞여지지 않도록 정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즉,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대로만 전파

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항상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4) 마틴 루터의 결혼과 죽음

1525년 6월13일, 마틴 루터는 42세의 나이로 열여섯 연하의 로마 카톨릭교회의 수녀인 카타리나 폰 보라(1499~1552)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전직 사제였던 마틴 루터와 전직 수녀였던 카타리나의 결혼은 당시 사회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모든 동료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마틴 루터는 결혼을 강행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결혼에 대하여 첫째, 노환이신 부친에게 손자를 보여드리고, 둘째, 결혼을 나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이 신성한 하나님의 가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실천하여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틴루터의 삶은 1546년 2월18일, 자신이 태어났던 아이슬레벤에서 63세의 나이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는 만스펠트의 백작들간에 일어난 법적 논쟁을 중재하는 기간중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16절을 반복하여 암송하는 가운데 임종을 한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성교회에 안치되었습니다

(5) 마틴 루터의 신학사상

마틴 루터의 신학사상은 세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①오직 성경(sola scriptura), ②오직 믿음(sola fide), ③오직 은혜(sola gratia) 였습니다 즉,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향한 사상적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과 시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진리의 오염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본래의 가치로 복귀하자는 부르짖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면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교황의 권위를 그 위에 올려 놓았으며, 성경에 무지한 성도들을 교묘히 이용하여 면죄부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사리사욕에 이미 눈이 멀어버린 상태가 되어 대수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든 성도가 그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은 성경은 그 가르침과 내용이 애매모호함이 없고 단순명료하면서도 확연히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규정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의로운 책이라고 교묘하게 기만하여 성경을 자의적으로 이용한 악행을 저질렀

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염되고 하나님의 권위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보았습니다

"오직 믿음"(sola fide)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면죄부와 속죄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양심의 복귀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모두 하나님께로 부터 나오지만 믿음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앙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교훈이라는 대명제 대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로마 카톨릭교회의 오류를 지적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sola gratia)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sola Jesus)를 믿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빼보라, 그리하면 성경에서 무엇을 더 찾을 수 있을까?"라고 마틴 루터는 말하였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 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부활로서 완성되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서와 기도로서 잠간의 위로를 얻을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고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18. 마틴루터의 종교개혁 3대논문

(1)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3가지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들은 마틴 루터가 1519년에 있었던 엑크(John Eck)의 라이프치히 논쟁 이후 1520년에 발표한 것으로 95논제에 대한 변증과 논리적 보완성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①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은 교황의 월권행위, 성직자의 독신주의에 대한 견해, 교회의 부패를 비난하고 신학교육의 개혁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② "교회의 바벨론 감금"(Babylonish Captivity of the Church)은 라틴어 논문으로 로마 카톨릭이 세례와 성찬 등 성례의식의 포로가 되어 평신도에게 분장을 허락하지 않는 비성경적 태도를 비난하였습니다. ③ "크리스찬의 자유"(On Christian Liberty)는 그리스도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칭의를 강조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모든 것을 단죄하고 결정하는 상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첫번째 논문인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와 관련된 개혁방안들을 예로 들어 독일의 귀족성도들에게 보낸 권면의 글이었습니다. 천년동안 지속되어 온 로마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규범, 종교문제들을 "로마의 세가지 담"에 비유하여 이것을 신학적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첫째, 일반성도라 지칭되는 세속적 계급위에 로마 카톨릭 교회 성직자로 지칭되는 영적 계급이 있는데 이러한 계급적 분류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계급이며 섬김의 직무상 차이가 있을 뿐, 상하적인 차별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제는 교회의 관리와 예배를 주관하는 직분외에 그 어떤 우월한 지위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사제로서 성별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만인제사장주이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성경해석자인 교황과 교황무오설에 관한 비판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이 성경의 유일한 교사라는 주장을 비판하였습니다. 교황은 스스로 유일한 권위자라고 생각하며, 악인과 선인의 구별없이 신앙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교황무오설(敎皇無誤說)이 거짓주장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러한 황당무개한 억지주장으로 인하여 카톨릭

릭 교회안에 이단적 요소와 잘못된 규정과 교회법이 교회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고린도전서 14:30과 요한복음 6:45을 인용하면서 모든 성도는 상하가 없고하나님의 동등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서 교황도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받아야 하고 성경해석과 성경해석의 확인 또한 교황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교황의 공의회 소집권에 관한 비판이었습니다. 공의회에 대한 소집과 결의의 권한이 오직 교황에게만 속한다는것이 로마법령에서 준한다면 그것을 승인한 법령은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니케아공의회는 주교가 아닌 콘스탄스황제가 소집하였으며 이 공의회는 역사적으로 가장 교회적인 공의회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공의회에 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가지려는 교황의 전횡적이고 비성경적 사고를 비판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공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다양한 문제들과 반드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당면과제를 2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 내의 문제를 기준으로 교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문제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27개 항목에 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의 교만을 비판하였습니다. 교황은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날마다 울며 기도하는 일과 모든 겸손의 본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황은 영혼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권력과 물욕에 탐닉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기경은 독일의 재산을 자국으로 되가져 가기위해 만들어진 직분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권위를 훼손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추기경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단적으로 경고하면서 직분의 바른 태도와 행위를 취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교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청이 없다고 해서 신앙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첫 수입세, 교황의 달, 자유 교구령, 성록령은 교황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악의적 수단이었다고 지적하고, 첫 수입세의 폐지, 로마의 임명에 대한 금지, 교황청내 성록령과 교구령거래소 전면금지, 개교회의 권리 회복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는 교황청내 설치한 성록령과 교구령매매를 위한 거래소가 창녀의 집이라고 극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속적 문제인 일반재판을 교황의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주교가들의 금품수수과 착취를 금하고 부정부패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결혼문제에도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결혼생활을 자유롭게 행하고, 성직자들 일반성도든 모든 사람이 결혼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죽은자를 위한 미사를 폐지하고, 성사금지를 폐기하며, 성자기념일 순례도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창가를 폐지하고 부담이 되는 각종 의식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독일 교회는 독일 민족교회의 산하에 두어야 하고 독자적인 회의가 가능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탁발교단들을 포함하는 구걸행위 또한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첫번째 논문인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은 만인제사장주의의 결과로서 교황권과 교황의 성경해석권, 공의회 소집에 관한 모든 교황청의 권한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매우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논제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내용과 논제가 성경에서 근거하고 신앙에서 추구하는 진리적 행태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교회의 바벨론 포로(Babylonish Captivity of the Church)

마틴 루터의 두번째 논문인 "교회의 바벨론 포로"(Babylonish Captivity of the Church)는 라틴어로 기록한 신학논문으로서 로마 카톨릭교회가 성례의 포로가 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세례와 성찬 등 성례전의 왜곡을 바벨론 포로생활로 비유한 것으로 성례전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포로가 된 현실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교회의 7대성례인 세례, 성찬, 참회, 안수례, 견신례, 결혼례, 임종도유식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가운데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보았습니다. 다른 다섯가지의 성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나 인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찬식의 경우에도 평신도들에게 떡은 주었으나 포도주를 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이 어느 성경에서 인용하여 이것을 금하고 있는지 되물어 보았습니다. 성찬식에서 어떤 한가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한가지도 주지 않을 권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다는 것이므로 바로 그것이 사악하고 전제적이며 권력의 남용과 오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황과 공의회 등 어떤 기관과 교회도 성찬식의 행위를 가감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근거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만찬에서 있어서 화체설(化體說)의 미신적인 요소를 정면으로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희생의 미사를 비판하였습니다. 카톨릭교회는 미사가 선행이고 희생제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미사때 마다 우리의 죄사함의 보수를 위해서 인간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노력과 공로가 있어함을 강조하는 희생제

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세례에 대하여 성례 가운데 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속이 없다면 믿음이 문제가 되고, 믿음이 없다면 약속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성례에서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참회를 회개와 고백과 보상으로 나누어 그것에 물질을 탐닉하는 수단으로 앞세웠다는 것을 강도높게 비판하였습니다

(3) 크리스찬의 자유(On Christian Liberty)

“크리스찬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크리스찬은 더할 수 없이 총의로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한다” 마틴 루터는 "자유로운 종"이라는 것으로 크리스찬이 갖는 독특한 지위를 "크리스찬의 자유"(On Christian Liberty) 라는 세번째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갖는 두가지 모순은 항상 하나의 존재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하나속에 공존하고, 죄로 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는 사람과 의로움을 취득한 사람이 또한 하나속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기독교적인 의로움과 내적 자유를 창조해 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의와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외에 다른 의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신앙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의 의와 구원에 필요한 율법적 행위와 공적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마틴 루터는 생각하였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진실성과 정직성, 신뢰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으로 이것이 두번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혼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신앙의 세번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주장은 만인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양선이 따르는 자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선행은 신앙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난 선행과 공적은 일반적 도덕을 의미할 수는 있으나 어떤 경우여라도 사람을 선하게 하지 못하며 불신앙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악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19. 로마 카톨릭의 개혁운동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로 이어져 왔던 교회가 분열되고 이로 인하여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세상 종말이 왔다고 믿었을 만큼 교황청의 충격이 컸습니다. 이 가운데 로마 카톨릭 교회안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수면위로 부상하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의 개혁에 맞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생존과 통일을 위한 부패정화, 규율의 정비 등을 통하여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운동에 대비되는 반 종교개혁운동(counter Reformation)을 전개하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운동이 본격화 하기 전에 카톨릭 교회안에서는 내부적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키메네스 추기경(Ximenes)의 주도 아래 수도원의 개혁과 성직자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키메네스는 알카라 대학(Alicala)을 설립하여 의학, 인문학, 고전언어학 등을 가르쳐 1522년에는 원어성경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1517년, 카라파(Caraffa)와 사도레토(Sadoleto), 콘타리니(Contarini) 추기경 등 50여명의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임"(Oratory of Divine Love)을 결성하여 교황 바오로 3세에게 교회개혁을 위한 건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온건한 개혁마저도 교황은 거부하며 강경노선을 이어갔습니다.

1541년, 콘타리니(Contarini) 추기경은 레겐스부르크 종교회의에 참석하여 존 칼빈과 타협점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나 회담은 양측의 참여한 대립속에 무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콘타리니는 이신득의(以信得義) 사상을 받아들였으나 교황의 사도적 계승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콘타리니의 교회적 연합과 일치를 위한 회의들이 결렬되자 교황 바오로 4세는 프로테스탄트를 이단적 사상으로 규정하고 종교재판제도를 열어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종교탄압을 강화하였습니다.

(1) 예수회 운동

수도단들 가운데 반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예수회 운동이었습니다. 익나티우스 로올라(Ignatius Loyola)는 귀족가문에서 태어나 스페인전쟁 중에 장교로 참전하였으나 팜프로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망르자 수도원(Manresa)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고행생활과 경건생활을 하며 성지순례를 한 익나티우스 로올라는 35세의 고령에 파리대학교에 입학하여 사비에르(Francis), 레페브르(Pierre Lefever)와 함께 1540년, 예수회를 창설하였습니다. 교회의 영적부흥, 이교도들에 대한 전도강

화, 전통적 수도원의 규칙준수, 빈곤, 정절, 복종과 함께 교황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맹세하는 등 군대와 유사한 조직이었습니다. 익나티우스 로올라는 "영적인 훈련"(Spiritual exercis)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고행적인 경건생활, 교육과 선교, 대륙선교의 진행과 진척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회는 목적은 수단을 의롭게 한다는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며 이것을 실행하였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회의 이러한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는 종교재판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비성경적, 비교회적 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주로 스페인에서 발생하였는데 스페인에서는 이들을 "로마의 칼", "이단의 망치"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 트렌드 회의(Trent,1545~1564)

1545년, 독일 황제 찰스5세의 제의로 교황 바오로 3세에 의해 트렌드 회의(Trent)가 소집되었습니다. 독일 황제는 이 회의를 통하여 로마 카톨릭교회와 프로테스탄트가 함께 공명하는 길을 모색하며, 교리적 통일을 달성하여 서구 기독교의 연합된 힘으로 터키의 회교세력을 무너뜨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바오로 3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확정하여 프로테스탄트 등 이단 척결을 위한 종교재판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였습니다.

트렌드 회의는 1545년부터 1564년까지 18년간에 걸쳐 세차례의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5명의 교황이 경질되고 22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의 결정권이 국가별이 아닌 감독단위로 되어 있는 규정으로 인하여 이탈리아의 뜻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의 의제 또한 교리확정을 우선으로 하자는 교황파와 교회개혁을 먼저 다루자는 황제파의 극한 대립으로 회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리와 개혁을 병행하여 토의하는 절충안으로 회의는 속개되었으나 회의의 모든 결정권은 교황에게 있다는 교황지상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미 한쪽으로 기운 회의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교리는 로마 카톨릭 교리를 인정하고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전통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성경의 해석권은 교회에만 있다고 회의는 결의하였습니다. 원제는 세례로 사함을 얻고 성례는 7가지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이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여 자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구원은 믿음과 행위로서 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신부들만 할 수 있고 미사는 희생의 제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교리적 확정외에 성직자의 자질향상과 독신생활의 엄격한 수행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프로테스탄트의 사상을 배척하기 위하여 금서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3) 종교재판

중세시대에 유행하였던 종교재판은 16세기 접어들면서 프로테스탄트의 박해수단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온갖 고문과 채찍으로 강요된 고백으로 정죄되면 세속정권에 의하여 재산몰수, 구속과 감옥형, 유배, 사형과 같은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교황 바오로 4세는 6명의 추기경을 종교재판의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유럽 전역을 프로테스탄트 탄압의 전초기지로 활용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순결정신을 내세워 강력한 처벌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542년, 이탈리아에서는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이러한 종교재판에 희생되어 순교를 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제 외로운 종교가 되었습니다. 복음보다 교권을 우위에 두려는 과욕으로 인하여 생명을 죽이는 종교, 파멸과 공포를 가져오는 정치집단이 되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최악의 괴물집단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20. 존 칼빈(요한 칼빈, Jean Calvin, 1509~1564)

(1) 칼빈의 이력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피가르디 지방 북부 교회도시 노용에서 명문 법률자문관 게라드 코뱅과 잔느 라 프랑스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출생

1521년 5월, 로마 카톨릭 참사회 소속 소년학교 까페뜨 입학, 대성당으로 부터 성직록 장학금 수령

1523년 8월, 파리 대학교육 준비과정학교 마르슈학교에서 수학

1523년, 칼빈의 개명 "요아니스 칼비누스"(Ioanis Calvinus)

1523년 12월, 파리대학교 몽테귀 칼리지에서 수사학 수학

1527년 9월, 누와용 마르뜨비여(Martheville)의 생 마르땡(Saint Martin) 사제직 성직록 장학금 수령

1527년, 누와용교회참사회와 직무상 마찰로 부친 게라드 코뱅은 칼빈에게 법학을 권유

1528년, 오를레앙 대학교 법학과로 전학 전과(유럽 최고의 법학자 피에르 드 레스뚜왈 교수)

1529년, 부르주 대학교로 전학, 부친, 게라드 코뱅, 로마 카톨릭교회로 부터 파문당함

1530년, 파리 포르떼 대학교에서 히브리어 수학

1531년 3월, 니콜라 뒤세맹의 "반박문" 서문작성

1531년 5월 26일, 부친, 게라드 코뱅 사망

1532년 4월 4일, 고대로마제국의 정치, 사상, 문학가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BC 4년~AD 65년 4월)의 "관용에 관하여" 주석 출판

1532년, 오를레앙 대학교 법학과 졸업

1533년 11월 1일, 만성절,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의 "저주받은 루터 이단" 박해 기간 중 니콜라 콥의 연설이 파리국회에 의해 제소, 니콜라 콥 도주

1533년, 칼빈은 니콜라 콥 사태로 파리근교로 도주

1534년, 파리남부지역 생통쥬지방에서 샤를르 데스빠비여(Charles d'Espeville)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프로테스탄트 참사회원 루이 뒤 띠예(Louis du Tillet)의 사택에 거주, "기독교 강요" 초판구상

1534년 4월, 네락(Nérac)지방에서 "르페브르"(Jacques Lefèvre d'Étaples), 클레락수도원(Clairac)의 궁정설교자 "제라르 루셀" 방문

1534년, 칼빈, "에띠엔느 들 라 포르쥬 그룹" 방문, 파리 외곽 "생 브누와"(Saint-Benoît)에서 설교,

"뒤 띠예"와 함께 오를레앙으로 여행 중 "영혼불멸" 집필

1534년 10월 17~18일, "앙뚜완느 마르꾸르"가 제안한 성만찬때 면병과 포도주가 예

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변화교리를 반박하는 대자보가 파리시가지 전체에 게시되는 플래카드 사건 발생

1534년 11월, 프랑스국왕 프랑수와 1세, 켈빈의 친구 "에띠엔느 들 라 포르쥬" 등 수백명을 체포하고 처형함,

1535년 6월, 켈빈은 바젤로 도피하여 "마르티아누스 루카누스"(Martianus Lucanus)라는 가명으로 생활, "올리베땅" 프랑스어 성경번역본 출판

1535년, 켈빈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 완성, 프랑스국왕 프랑수아 1세에게 헌정

1536년 2월, 이탈리아 여행중 국왕 루이 12세의 공주인 레나타(Renata, Renée)공작 부인의 페라리궁정에서 머물며 사상을 전파함

1536년 3월, 기독교 강요 라틴어 초판 출판, 빠른 속도로 전파됨

1536년 9월, 스위스 제네바 생 피에르 성당에서 성서교사로 임명되어 바울서신 강해,

어떤 지역에서는 목사로 활동함

1536년 10월, 스위스 로잔과 베른에서 종교토론회 및 종교회의의 참석

1538년 4월, 켈빈은 제네바를 떠나 베른과 취리히를 거쳐 바젤로 이동,

1538년 9월, 슈트라스부르크에서 400~500명으로 구성된 프랑스 망명객의 교회 목사로 취임

1538년 10월24일, 파렐에게 보내는 첫번째 편지, 혼란속의 제네바를 논의 함

1539년, 김나지움 지역교회에서 신약성경 해석 교수함, 기독교 강요 두번째 출판

1540년, 켈빈, "로마서 주석" 출판

1540년 3월29일, 파렐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 제네바로 복귀하려는 사람들을 말려 달라고 함

1540년 8월6일, 켈빈, 재세례파 출신인 장 스토르되르의 미망인 "이델레뜨 드 뷔르"와 결혼

1540년 9월21일, 제네바 시의회 켈빈을 제네바로 소환할 것을 강구하고 10월22일, 귀환요청 서신 발송

1541년, 켈빈,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만찬 소고" 출판

1541년 5월1일, 제네바 시의회 켈빈금지령을 폐지하고 만장일치로 청빙결정, 켈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

1541년 11월21일, 제네바 시의회 시민법제정을 위한 쇠위원회에 켈빈 임명

1542년 7월28일, 아들 "자끄"(Jacques) 출생하였으나 조산으로 사망

1549년 3월29일, 아내 이델레뜨 드 뷔르 사망

1556년, 켈빈은 오래동안 지병으로 쇠약해짐

1559년, 스위스 제네바 시민권 취득

1559년 6월5일, 켈빈, 제네바대학교 전신인 제네바 아카데미 개원

1564년 2월2일, 에스겔서와 관련된 마지막 강의

1564년 2월6일, 켈빈의 마지막 설교

1564년5월27일, 켈빈 사망, 자신의 유언에 따라 오늘날 무덤이 전해지지 않음

(2) 켈빈의 생애와 개혁운동

1509년7월10일, 켈빈은 프랑스 피가르디 지방 북부 교회도시 노용에서 명문 법률자문관 출신의 부친 게라드 코뱅과 모친 잔느 라 프랑스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습니다. 1521년, 누와용의 로마 카톨릭 참사회가 운영하는 소년학교 까삐뜨에 입학한 후 대성당으로 부터 성직록을 받았습니다. 1523년 8월, 켈빈은 파리로 이주하여 대학입학 준비과정인 인문주의 교육기관, 마르슈 학교에 다니면서 근대식 교수법으로 유명한 꼬르디에르 교수로 부터 신앙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중 켈빈은 "요아니스 칼비누스"(Ioanis Calvinus)로 개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존 켈빈"(Jean Calvin)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523년 말, 켈빈은 파리대학교 몽테귀 칼리지에서 수학하며 에라스무스와 라블레 교수 등으로 부터 인문학과 수사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켈빈이 파리대학교에 다닐 무렵 프랑스는 공동생활형제단의 근대적 경건운동과 유명론 등이 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시기였습니다. 켈빈은 콕(Cop)가문과 친분을 갖게 되면서 당대의 다양한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사상에 접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삐에르 로베르 올리베땅(Pierre Olivetan)은 이러한 종교개혁사상을 사촌동생인 켈빈에게 영향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27년 9월27일, 누와용 인근 마르뜨비여(Martheville) 마을의 성 마틴(Saint Martin) 사제직을 맡으며 성직록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켈빈의 부친인 게라드 코뱅은 교회 참사회와 직무와 관련하여 극한 마찰을 빚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켈빈은 부친의 권유로 1528년, 오를레앙 대학교 법학부에서 당대 명법학자 피에르 드레스뚜왈로 부터 수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를레앙 대학교에서 그리스어를 배운 켈빈은 이듬해인 1529년 여름, 부르주대학교로 전학을 하여 역사학파의 창시자인 안드레아 알키아티로 부터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해 그의 부친인 게라드 코뱅은 로마 카톨릭교회로 부터 파문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1530년, 파리로 돌아간 켈빈은 포르떼 대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등 종교개혁을 향한 기초적인 지혜들은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1531년 3월 초, 켈빈은 니콜라 뒤쉐맹의 "반박문"을 가지고 파리로 돌아가 6일에 이 책의 서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켈빈의 첫 출판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인 5월26일, 그의 부친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1532년 4월4일, 고대로마 제국의 정치,사상,문학가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BC4년~AD65년4월)의 "관용에 관하여"를 주석하여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를레앙대

학교에서 법학을 졸업하였습니다

1533년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날인 만성절이었습니다 니콜라 콥은 교수들과 고위 성직자들이 모인 신학기 개강예배에서 기독교적 철학과 법률과 복음의 관계에 관하여 비판적인 설교를 하였습니다 파리국회는 바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니콜라 콥을 소환하기로 하였으나 켈빈과 함께 이미 도주한 후 었습니다 분노한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는 "저주받은 루터 이단"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533년 말, 파리를 벗어난 켈빈은 다시 파리시내 남부지역 생통쥬 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켈빈은 "샤를르 데스뻬비에"Charles d'Espeville)라는 가명으로 클레교구 목사이며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참사회원인 루이 뒤 띠예(Louis du Tillet)의 저택에 은둔하며 그의 일생의 대표작이며 기독교 장로교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기독교 강요" 초판을 구상하였습니다

1534년 4월, 켈빈은 르페브르(Jacques Lefèvre d'Étaples)의 80세 생일을 맞이하여 네락(Nérac)으로 갔습니다 또한, 클레락(Clairac)수도원의 궁정 설교자 제라르 루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띠엔느 들 라 포르쥬 그룹"을 방문하여 재세례파교회의 지도자인 "강땡 티프리"를 만났습니다 켈빈은 뒤 띠예와 함께 푸와티에르(Poitiers)에 있는 지지자들에게로 갔고 외곽지역인 성 브누와(Saint-Benoît)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 켈빈은 오를레앙으로 가면서 "영혼불멸"을 집필하였습니다

1534년 10월17일, 전병과 포도주가 성만찬시에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변화 교리"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파리를 중심으로 프랑스 전역에 게재되는 이른바 "플래카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자보의 기안자는 뇌샤텔의 주교인 앙투완느 마르꾸르였습니다 프랑스국왕 프랑수와 1세는 수백명의 관련자들을 체포하였고 켈빈의 절친인 에띠엔느 들 라 포르쥬를 포함하여 수십명이 화형되는 극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켈빈은 이 사건으로 바젤로 도피하였고, 마르티아누스 루카누스(Martianus Lucanus)라는 가명으로 한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1535년 6월4일, 올리베땅에 의해프랑스어 성경이 출판되었고 켈빈은 성경의 서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고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 주교의 설교집에 서문을 기록하였으며 1536년 3월에는 그의 대표작인 "기독교 강요"도 완성되어 이 책을 프랑스 국왕 프랑수와 1세에게 헌정하였습니다

프랑스국왕 프랑수와 1세는 망명객의 귀환을 허용하는 임시특별사면과 6개월 기간 내에 프로테스탄트 등의 이단과 단절해야 하는 자수기간을 선포하였습니다 기독교 강요 출판 전후로 이탈리아 여행중이었던 켈빈은 국왕 루이 12세의 딸이며 프랑스

국왕 프랑수와 1세의 친척인 레나타(Renata, Renée) 공작부인과 함께 다수의 프로테스탄트교 성도들과 함께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인 클레망 마로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왕의 특별사면으로 칼빈은 파리로 향하였고 프랑스에 다시 올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때마침 프랑스와 신성로마제국 황제간에 전쟁이 발발하고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1526년, 사부와 공작령으로 부터 독립을 쟁취한 제네바는 10,000여명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1532년, 프로테스탄트지역이 된 베른을 계기로 기욤 파렐과 그를 지원하던 사람들은 이 시기에 제네바에 종교개혁운동을 도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534년, 제네바의 목사 페렐은 칼빈이 제네바에 방문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536년 5월21일, 제네바 시민들은 파렐의 지휘아래 종교개혁운동을 찬성하였습니다 4개월 후인 9월5일, 칼빈은 제네바의 피에르 성당에서 바울서신을 강해하는 성서교사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칼빈은 그 이전부터 이미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제네바에서는 성서교사로서 부임하였습니다

1536년 10월, 파렐 목사와 칼빈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공개 종교회의와 베른에서 열린 종교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칼빈의 성경적 지혜와 지식은 매우 뛰어났으며 회의를 주도할 만큼 논리적이고 정확하였습니다 1537년 1월16일, 제네바의 목사들은 시의회에 제네바 교회의 개혁에 필요한 규정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교리교육서와 신앙고백서 등의 규정들이 시의회를 통과하였지만 재세례파와 같은 다른 종교개혁세력과 마찰을 빚게 되자 시의회는 베른의 관례들을 제네바에 도입하는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이 일로 1538년 4월25일, 제네바의 목사들은 제네바로 부터 추방을 당하고 칼빈과 파렐은 베른과 취리히를 경유하여 바젤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젤에서 뇌샤델로 옮긴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2판을 준비하면서 500명의 프랑스 망명객으로 구성된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1539년, 칼빈은 김나지움 지역에서 신약성경의 해석을 가르치며 라틴어로 구성된 기독교 강요 2판을 출판하였습니다 1540년 봄, 재세례파 출신인 장 스토르되르가 1남1녀를 두고 흑사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미망인인 "이델레뜨 드 뷔르"와 8월6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해 칼빈은 로마서 주석을 출판하였고, 이듬해 인 1541년에는 평신도들에게 성찬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성만찬 소고를 제네바에서 출판하였습니다 1542년 7월28일, 이델레뜨 드 뷔르는 칼빈과의 사이에서 자끄(Jacques)를 출산하였으나 조산으로 단명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상심에 빠진 이델레뜨 드 뷔르 또한 1549년 3월2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칼빈은 그의 남은 자녀들을 돌보며 그녀를 위로 하였습니다

1538년 이후, 제네바의 상황은 종교적 혼란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렐과 켈빈의 후원자들은 기에르맹(Guillermin)을 조직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제네바 시의원 아미 페렐(Ami Perrin)과 라리브학교(La Rive)) 학장 앙투와느 소니에르(Antoine Saunier) 등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앙리 드 라 마레(Henri de la Mare), 자끄 베르나르(Jacques Bernard)목사 등 신임목사들을 부인하고, 성찬에 참여여부에 관하여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540년 2월, 제네바에 불리한 협약을 베른과 맺은 제네바 시의원모임 아르띠쿨랑(Articulants)과 기에르맹(Guillermin)과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켈빈은 제네바 성도들이 귀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1536년의 제네바 상황이 켈빈을 주저하게 하였습니다 1540년 9월 제네바 시의회는 켈빈의 제네바 입성을 요구했고 10월22일에는 정식 초청장을 발송하였습니다 1541년 5월1일 제네바 시의회는 켈빈에게 내려졌던 금지령을 폐지하고 파렐, 소니에르와 함께 켈빈을 하나님의 목자로 인정하였습니다

1541년 9월, 제네바로 입성한 켈빈은 시의회와 제네바 목사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법을 작성하였고 26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시의회는 이것을 승인하였습니다 11월 21일 시민법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켈빈은 위원으로 참여하여 1543년 1월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켈빈은 제네바의 목사가 되었으며 1538년 이후 중단되었던 성경본문 강해설교에 집중하였습니다

제네바에 새롭게 도입된 엄격한 신행일치의 생활은 많은 도시민들의 저항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546년 1월, 소의회의 일원인 뵘에르 아모의 부인이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게되었을때 켈빈의 교리와 생활준칙은 아모의 이혼소송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모는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처벌수위 문제로 200인 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 해, 춤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사건에는 시장관인 앙블라르 코르느(Amblard Corne)와 포병대장 아미 페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치리회는 그들을 선처하지 않았고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8월에는 아벨 뿌핑(Abel Poupin)이 집례한 아미 페렐의 결혼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서약서의 질문에 "예"라는 대답대신 고개를 저어 버리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곁에있던 아미 페렐이 순간적으로 웃어 버리는 사건으로 시의회는 두사람을 성례위반으로 처벌을 하였습니다 1547년 9월, 아미 페렐 시의회 의장은 부인과 장인의 수감과 관련하여 시의회를 맹비난하였습니다 이 일로 아미 페렐은 10월에 의장직분이 박탈되고 그 역시 체포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1548년 켈빈은 스위스 로잔스에서 카인(Cain)으로 불리워졌으며 제네바에서 축출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 11월 선거에서 켈빈의 대적들이 대승하고 사법부와 관련된 주요관직들을 그들이 석권하게 되었습니다 1549년 1월, 시의회는 포고문

을 발표하고 시 전체에 복음을 따라 개혁주의의 종교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기독교적 생활을 준수하고 교회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라는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규정준수를 감독하는 감독자들에게 책임감이 주어졌고 그들이 모범적 삶이 동일하게 요구되었습니다 1549년 2월의 선거에서 아미 페렐은 수석장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6년후인 1555년 2월의 선거에서는 켈빈의 추종자들에게 모든 자리를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1555년 5월, 시의회는 프랑سم명객 50여명에게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아미 페렐은 이들에게 10년간 선거권과 무기소지권을 금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500명의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집회를 가지며 폭력사태까지 빚어지는 시위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베르 시장관은 12명을 체포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도주하며 아미 페렐파의 도전은 끝이 났습니다 켈빈은 이것으로 제네바에 이루어진 도시교회개혁운동을 위한 목숨을 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556년, 켈빈은 이미 쇠약한 몸으로 건강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1559년, 켈빈은 제네바 시민권을 취득하고 기독교강요의 신판을 출판하였습니다 6월5일에는 명문사학 제네바대학교의 전신인 제네바 아카데미가 개원하고 켈빈의 정신을 이어가는 종교개혁은 이제 체계화된 교육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564년 2월2일, 에스겔서를 강해하며 생애 마지막 강의를 했고, 4일후인 6일에는 마지막 설교를 하였습니다 5월27일, 위대한 종교개혁자 켈빈은 소천을 하였습니다 그의 무덤은 자신의 유명세로 인하여 숭배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그의 무덤은 후대가 추정하여 설정한 상징적인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3) 기독교 강요(基督教綱要,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자 켈빈이 지은 프로테스탄트교의 조직신학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1536년, 라틴어 초판을 시작으로 1539년의 증보판, 1541년의 프랑스어판, 1543년과 1550년의 증보판, 그리고 1560년의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기록된 결정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강요는 당시의 프로테스탄트교 사상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서적이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바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사회를 비롯하여 중세 기독교의 상황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진리는 훼손되고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한채 정체되어 있음을 가슴 아파하며 진리구현과 국가변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기록한 순수 복음의 해석서 인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전권 4권, 8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권별로 내용은 더욱 심화되어 과연 이 책을 인간의 지혜로 기록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영적 분석이 명

쾌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1)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의 본질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를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3)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4) 무지에 의해서나 악의에 의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은 오염되고 더럽혀졌습니다 5)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숨겨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6)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성경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7) 성령의 증거는 성경의 권위의 확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있다는 논리는 사악한 거짓입니다 8) 성령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 범주내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9) 그러나 성경을 버리고 계시들을 쫓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10) 성경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선포하여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모든 미신과 지역적 토테미즘사상을 타파하고 있습니다 11)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행위이며 우상을 세우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극악한 행위입니다 12) 하나님은 우상과 전적으로 구별되시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하고 전적인 존귀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13)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며 그 안에 삼위하나님이 계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14)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이르기 까지 성경은 명확한 표지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 우상신들과 구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5) 사람의 창조된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원시의(原始義)는 중요한 성경적 교훈이 됩니다 16)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스스로의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그의 섭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17) 섭리 교리의 올바른 적용은 무엇인가? 18) 하나님은 불경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을 시행하시며 스스로 부정함이 없이 순결성을 항상 유지하십니다

제 2권은 "율법아래에서 조상들에게 나타나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1) 원죄론(原罪論)은 아담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원시상태에서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2) 사람의 비참한 현 상태는 의지의 자유를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저주받은 것 뿐입니다 4)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5) 자유의지를 변호하여 제기되는 반론들을 반박하였습니다 6)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안에서 구속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7)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구약백성들을 그 아래 가두어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메시아가 오시기 까지 견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8) 십계명의 해설 9) 그리스도는 율법아래에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졌으나 오직 복음 안에서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10)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유사점 11)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점 12)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의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13)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본성의 참 본질을 취하셨습니다 14) 중보자의 두 본성이 한 위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15) 성부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지자, 왕, 제사장직 등 그의 세가지 직분을 보아야 합니다 16)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자의 기능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중요한 논의는 기독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17)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를 위해 얻으셨다는 진술은 올바르고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제 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로 1)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것입니다 2) 믿음의 정의과 특성을 명확히 알고 3)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과 회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스콜라 신학자들의 회개론은 복음의 순결성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서 고해와 복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5) 보속설을 보충하기 위한 장치들 : 면죄부와 연옥은 무엇인가? 6)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7)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8)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기 부인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 영생에 대한 묵상과 10)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자세 11)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12) 값없는 칭의의 교리를 확실하게 납득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우러러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 보아야 합니다 13) 값없는 칭의의 교리에서 유념해야 할 두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14) 칭의의 시작과 그 이후의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5)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랑은 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립니다 16) 칭의의 교리에 오명을 씌우기 위한 교황주의자들의 거짓 비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7)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 18) 행위의 의는 상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20) 기도는 믿음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며 기도로서 얻는 일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21) 하나님은 이로써 어떤 이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어떤 이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습니다 22) 성경적 증거들을 통하여 선택교리를 확증합니다 23) 선택교리를 공격해온 거짓된 비방들에 대한 반박은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24)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확증되며 악인은 그들에게 정해진 공의로운 멸망을 자초합니다 25) 최후의 부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분명한 미래로 우리를 표현할 것입니다

제 4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에 들이셔서 그 속에서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 및 목표"로서 1)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로서 연합을 유지해야 할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2) 거짓 교회와 참교회는 어떻게 다른가? 3) 교회의 교사들과 사역자들에 대한 선출과 직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고대 교회의 상태와 교황제 확립 이전의 교회정치의 형태는 무엇인가? 5) 고대 교회의 정치 형태가 교황제의 횡포로 인하여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6) 로마 관구의 수위권(首位權) 7) 로마 교황제의 기원과 성장은 스스로 최고의 왕으로 부상하여 결국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모든 콘트롤 장치를 무너뜨리기에 이르렀습니다 8)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세는 교황제의 무절제한 방종으로 교리의 순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9) 교회회의들과 그 권위는 무엇인가? 10) 입법권을 가진 교황은 이 권한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사람의 영혼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압박과 도살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11) 교회의 재판권과 교황제도에서의 재판권 남용은 도를 넘어 자행되었습니다 12) 교회의 권징은 주로 견책과 출교로 나타 납니다 13) 경솔한 맹세로 불행한 속박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4) 성례 15) 세례 16) 유아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제도와 표적의 본질에 가장 잘 일치되는 것입니다 17) 그리스도의 성만찬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18) 카톨릭의 미사는 성만찬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멸하는 모독행위입니다 19) 성례에 포함되어 있는 다섯가지의 의식은 거짓이며 그것이 거짓된 이유와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20) 국가 통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켈빈의 5대교리

켈빈의 5대교리는 켈빈이 사망한 후 50년후에 있었던 "도르트레흐트 종교회의"(1618년 ~ 1619년)에서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종교회의는 켈빈의 예정론에 대하여 아르미니우스가 논쟁을 촉발시켰고 켈빈의 후계자들이 격돌하면서 회의는 1년여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① 전적타락(Total depravity), ② 무조건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③ 제한적 속죄(Limited Atonement), ④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⑤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saints) 등 "켈빈의 5대교리"가 정립되었습니다.

① **전적타락(Total depravity)** :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앞에서 불순종함으로써 원죄가 발생하였고, 그 원죄에 의하여 모든 후손들은 단 한명의 예외없이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전적 타락이란 바로 이러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죄의 속성으로 완전히 타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완전히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동물과는 다르게 상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고, 특히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알고 싶지도 않는 탈복음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② **무조건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며 댓가없는 선물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안에서 권을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악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신분과 행함과 절차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고 단회적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중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③ **제한적 속죄(Limited Atonement)** : "특별 속죄"라고도 불리우는 "제한적 속죄" 또는 "제한적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택함을 입은 자녀의 죄를 제한하여 대속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14~15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못박음으로서 제한적 구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제한"이라는 것은 "선택"과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구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④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 "효과적인 부름"이라고도 불리우는 불가항력적 은혜는 디모데후서1장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섭리만이 구원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과 은혜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⑤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saints)** : 히브리서 6장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와 보증으로 확증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보호와 안전성은 하나님의 성도의 구원을 위한 확증적 약속을 표현한 것입니다 절대 불변의 원칙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지을수도 있고 낙심과 절망에 귀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회복될것임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여호와의 백성은 항상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21. 재세례파 운동(再洗禮派, Anabaptist)

재 세례파는 재 침례파((再浸禮派)라고도 하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급진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성된 프로테스탄트교 종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세례파는 유아세례는 물론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받은 영세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재세례파라는 명칭이 유래하고 있습니다 재세례파는 지금의 아미시파, 후터라이트, 메노나이트로 이어지는 교파로 우리나라에 있는 1개의 교회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는 120만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재세례파의 교리는 전쟁과 분쟁, 그리고 폭력을 반대하는 비폭력주의를 주장하며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통하여 종교가 국가통치에 개입하여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신앙증진에만 귀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등과 사랑의 실천을 통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로마 카톨릭의 영세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거룩한 삶과 형제애의 실천을 강조하고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였습니다

후마이에르는 1525년 "신자의 세례에 대하여"와 1526년"쯔빙글리와의 대담"을 기록하고 모라비아로 도피하여 재세례파운동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1527년 아우구스베르그에서 재세례파 지도자회의를 개최하고 사틀러(Michael Sattler)가 기초한 7개조의 신앙선언문을 선포하였습니다 ① 우리는 신자 세례를 믿습니다 ② 교회는 성만찬으로 결합된 모임입니다 ③ 성경은 축자 영감으로 받을 것입니다 ④ 권징은 파문이상 다른 처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⑤ 교역자는 개교회가 직접 선택하여야 합니다 ⑥ 신자의 정치참여는 있을 수 없습니다 ⑦ 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맹세할 수 없습니다

재세례파는 스위스형제단(Grebel, Manz)과 네덜란드 및 프리시안 재침례파(Menno Simons, Dirk Philips), 그리고 남부 독일 재침례파(Hübmaier, Marpeck)로 각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급진적 재침례파는 새예루살렘 건설을 위한 폭력적 시위로 "뮌스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반대로 평화주의적 재침례파는 신약성경의 비폭력에 근거하여 메노나이트(Mennonites)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는 로마 카톨릭 교회 소속 네덜란드 사제인 메노 시몬스(Menno Simons)가 오비파(Obbenites)와 호프만파(Melchio Hoffman) 가운데 평화적인 오비파를 선택하고 오비파의 지도자가 됨으로서 메노나이트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노의 특징은 구약성경보다 신약성경의 교훈에 따라 폭력에 반대하며 평화적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재세례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그레벨(Conrad Grebel), 만즈(Felix Manz), 후마이에

르(Balthasan Hubmaier) 등이 있습니다 1525년 쾰빙글리는 이들과 공개토론을 통하여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치리하였으나 이들은 저항으로 맞서는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일로 만즈는 로마 카톨릭 영세에 이어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순교를 하는 등 재세례파는 세례문제로 말미암아 로마 카톨릭 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교로 부터도 이단으로 정죄되어 1529년 스파이엘 국회에서 모든 재세례파에 대한 사형령을 가결함으로써 1600년까지 1만명의 순교자가 발생하였고 이들의 탄압은 근대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2. 프랑스의 종교개혁운동

종교개혁운동은 로마카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프로테스탄트교회라는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켰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루터파 교회와 개혁신교교회, 그리고 영국 교회 등 3대 고백적 교회를 출산 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유럽으로 확산되어 가는 종교개혁운동은 프랑스에도 마찬가지로 국내외적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는 중세후반, 중앙집권적 권력구도와 영토의 통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교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하여 프랑스의 국력은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유그노(Huguenots)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프로테스탄트교는 극심한 박해속에서도 성서 인문주의자(Bible Humanist)들의 프랑스어 성경번역과 출판을 통하여 칼빈의 사상이 지성인들에게 급속히 전파되었고 이것을 통하여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제네바에 망명한 칼빈주의자들의 지원으로 라틴어로 기록된 기독교 강요가 프랑스어로 번역되면서 프랑스의 종교개혁은 브레이크없는 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그노는 "맹약한 동지"라는 의미를 가진 "아이드게 노트"에서 변형된 것으로 신앙을 위해서는 순교도 각오한다는 정신적 일체감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통적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정착하기 까지 프랑스에서는 상공인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중산층이상의 유그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박해가 끊이지 않았으며 초대교회와 같은 어려움속에서 예배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으려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는 오직 로마 카톨릭 교회 하나였습니다. 국가는 하나의 종교로 이루어져 있고 종교지도자의 영향력 또한 절대적이었습니다. 신교간의 경쟁이 너무도 치열하여 생긴 휴전조약인 베스트 팔리아(Westpalia Treaty)에도 국가와 종교는 일체감을 포함하였을 만큼 종교는 국가를 통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종교지도자인 칼빈은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의원을 지내며 종교지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순탄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1547년, 프란시스 1세가 사망한후 앙리 2세 또한 즉위한 지 얼마 못되어 부상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후로 그의 자녀가운데 아들 셋이 연이어 왕에 오르고 그들마저 사망하자 남은 딸이 여왕에 등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앙리 2세의 부인인 카더린(Catherine de Medici)이 수렴청정을 하는 권력의 2중구조가 형성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카더린은 종교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권력의 독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구조상 카톨릭 신자인 규이즈(Guise)가문이 행정부와 사법부

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카더린은 이들과 맞서고 권력을 쟁취하려는 목적으로 프로테스탄트교도들을 이용하였습니다. 1562년, 카더린은 유그노가 비무장인 상태에서는 예배를 허용하는 성 제르망 칙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프랑스에서 카더린 대비의 칙령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규이즈 가문이 유그노의 무장해제된 예배를 착취하고 무차별적으로 대학살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일로 프랑스에서는 유그노 전쟁이 시작되었고 상대방을 향한 살육전은 1년 이상 지속되었으나 스페인과의 국가전쟁으로 종교활동은 제한되었습니다. 그 후 헨리 2세의 융화정책으로 1559년에는 프로테스탄트교인이 40만명을 넘었으나 헨리 2세가 사망한 후로는 또 다시 학살이 이어졌고 박해와 순교와 확장을 반복하며 프랑스에는 프로테스탄트교가 숲을 이루는 완전한 종교로 자리매김하여 갔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유그노전쟁은 3회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첫번째 유그노의 지도자는 콘도로 잉글랜드와 게르만의 프로테스탄트가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규이즈 형제와 몬트모렌시(Montmorency)장군과 성 안드레(St.andre)가 노르망디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안드레는 전사하고 몬트모렌시와 콘디가 각각 상대편의 포로가 되는 등 양측이 대표와 전사를 잃어버리는 모두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1563년 3월, 암보아즈(Amboise)칙령으로 유그노의 귀족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었고 일반을 위해서는 지정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의 유그노전쟁은 로레인의 카디날이 궁중에서 세력화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국왕옹립의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1567년 11월, 아무런 결정을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번째의 유그노전쟁은 목사 추방과 프로테스탄트교인들에 대한 잦은 공격으로 1568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579년 8월, 산제르멘(Sant. Germain)조약을 체결하고 파리의외의 지역에서의 예배자유, 평등권리를 보장하고 4개소의 도시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리한 유그노 전쟁은 일전일퇴의 긴장속에서 3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유그노를 지지하였으나 카톨릭은 로마와 결탁하고 서바나왕 필립에게 엘리사벳을 시집을 보내며 스코틀랜드를 자극하여 잉글랜드와 전쟁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의 동생 마가렛과 나발의 앙리와의 결혼이 추진되어 1572년 8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파리에 참석한 유그노의 무리들에게 대학살을 가는데 남여노소 무론하고 70,000여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을 "성 바들로매의 제 1학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성 바들로매의 대학살 이후 프랑스 내에서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국왕이 도미니파 수도사 작 클레멘에게 암살되고 앙리 4세가 왕위에 즉위하였습니다 유그노 소속인 앙리 4세는 1598년 4월, 낭트(Nantes)칙령을 선포하고 유그노의 예배를 보장하고 관직에 오르는 권리와 병력을 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10년, 카톨릭의 광신자가 앙리 4세를 암살함으로써 종교간 갈등과 내전은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교인들은 지하로 숨어 들었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수천 명의 남자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여자들은 남자들의 노리개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1787년 루이 16세에 의한 종교의 자유가 선포될 때 까지 고난은 계속되었으며 프랑스에서 복음은 결국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었습니다

23. 네덜란드(화란)의 종교개혁운동

현재의 네덜란드는 화란과 벨기에의 일부지역을 통합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영토는 다수의 후국들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부르군디 공, 쉬알이 결혼하여 매수와 약탈의 수단으로 강제 합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쉬알 공이 프랑스왕 루이 11세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후로는 영토의 대부분은 프랑스에 합병되고 나머지도 오스트리아 등에 편입되어 버렸으며, 그 후로는 게르만제국 황제 찰스 5세에 의해 게르만 제국의 일부가 되는 등 세계 열강들의 먹이감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의 특성은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자유를 선호하고 모험적 정신을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고대로 부터 종교적 성격이 강하여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서 공동생활 형제단(Brethren of the Common Life)과 같은 단체가 왕성하였고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Erasmus)와 같은 학자를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1518년, 마틴 루터의 사상과 철학은 네덜란드를 지배하기에 충분하였고 그의 저서는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1523년에는 신약성경이 화란어로 번역출판되어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와 같이 네덜란드의 종교개혁도 순탄하지않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를 지배하던 스페인은 프로테스탄트교를 박해하며 로마 카톨릭의 지속적인 영향력 아래 두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북유럽은 로마 카톨릭과 개혁신교회, 루터 교회 등 3대교회의 지배아래 놓였고 네덜란드는 로마 카톨릭과 칼빈주의를 함께 선택하였으며, 스칸디나비아 3국은 루터교를 수용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낮은 지대라는 뜻으로 땅이 해수면보다 낮아서 해변에 방대한 독을 쌓아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쌓은 독이 터지면 바다로 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환경과 늘 긴장속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23년, 스페인왕국의 찰스5세가 지배하는 네덜란드는 5,000여명이 종교탄압으로 처형되는 등 수많은 순교자를 잃었습니다 필립2세 또한 이복여동생 파라 후작부인 마가레트를 총독으로 임명하여 프로테스탄트교도들을 끊임없이 박해하였습니다

1566년, 필립 2세는 모든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트렌트 종교회의의 결정사항인 로마 카톨릭교회의 신앙고백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이 1556년 결성되어 많은 성당을 파괴하는 보복을 가하였으나 1567년, 필립2세 또한 군대를 동원하여 학살을 하는 등 양측의 대립은 첨예화하였습니다 1576년, 엘리사벳여왕의 지원으로 필립 2세의 알바장군과의 일전을 거둬낸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William of Orange)은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1609년, 네덜란드인의 저항은 스페인군대를 화란

에서 추방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648년에는 웨스트팔리아조약(Westpalia treaty)에 의하여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1561년, 벨직 신앙고백서(Belgic Confession)를 채택하고 개혁교회를 정식 국가종교로 승인하였습니다 1571년 엠덴 제1차 총회가 개최되었고, 루터파교인들이 합세함으로써 전국적인 개혁교회를 창설하였습니다 1575년에는 라이덴대학교를 설립하여 개혁교회 신앙인들을 양성하고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1577년에는 재세례파에 대한 관용을 베풀었으나 알미너스주의자들에 의해 교리적 관용은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나 1621년 돌트회의에서 알미너스사상(Jacobus Arminus,1560~1609)을 정죄하였고 칼빈의 5대교리를 개혁교회의 기초로 정하였습니다

24.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의 영향력으로 부터 독립을 유지하고 프랑스와 화친하며 독자적 노선을 가고 있었습니다 14세기 초,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에 합병되어 있었으나 영웅 로버트 부르스(Robert Bruce)로 인하여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스코틀랜드로 인하여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항상 대립하였고 1322년 이후로 100년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잉글랜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켈빈과 켈빈주의자들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16세기 초, 스코틀랜드의 종교적 상황은 타락의 극치였습니다 국가 전체의 절반을 성직자들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패와 부정은 심각하였습니다 사제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은 구별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제들의 부패가 일반인의 도를 넘는 탐욕이 일상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부정의 만연이 극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스코틀랜드의 현실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선구자는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n,1504~1528)이었습니다 독일 유학시절 비덴베르그에서 루터사상을 받아들이고 스코틀랜드로 귀국하여 개혁사상을 설교하다가 1528년 2월 29일 화형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존 낙스의 스승인 위샤르트(George Wishart,1513~1546)가 화형을 당하는 등 공포의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가 사망하자, 스코틀랜드 친영파의 지원을 받아 왕위 계승자인 메리 스튜어트를 자신의 아들 에드워드와 결혼을 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을 신앙하는 왕실에 의해 메리 스튜어트는 프랑스 왕자와 혼인을 하게 하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급진파들은 세인트 앤드류성을 점령하고 대주교를 살해하였습니다 왕실은 군대를 파견하는 등 전쟁을 감행하였으나 왕실 내부의 분쟁으로 성을 되찾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스코틀랜드의 프로테스탄트교도들은 세인트 앤드류성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존 낙스는 스콜라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부들의 서적을 탐독하였고 제롬과 어거스틴의 저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낙스는 제롬으로부터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원천이라는 것을 배우고 원어성경을 탐독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인 성경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는 법을 낙스에게 교훈하였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신앙의 의인" 이 두가지를 깨달은 낙스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선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존 낙스가 종교개혁을 주도하며 스코틀랜드의 신앙회복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존 낙스는 세인트 앤드류성 점령계획을 추진한 프로테스탄트교 귀족의 자녀를 가르쳤던 가정교사였습니다. 낙스는 어이없는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으로 1년6개월동안 감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1549년, 잉글랜드 정부의 노력의 석방되어 잉글랜드에 도착한 후 5년동안 각지에서 설교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6세의 궁정목사직을 수행하던 중 메리왕조의 박해가 일어나자 프랑스로 도피하였고 다시 스위스 제네바로 도피한 후 그곳에서 켈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켈빈의 사상에 깊은 감화를 받은 낙스가 켈빈과 함께 제네바에 머물고 있는 동안 1557년,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은 개혁운동의 동맹을 결성하고 존 낙스에게 서신을 띄워 귀국을 촉구하였습니다. 1559년,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귀국하여 각지를 순회하며 설교하였고 결혼후에는 제네바로 돌아갔습니다.

존 낙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 한 규이즈가문의 메리는 프랑스의 병력을 지원받아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파괴하고자 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프로테스탄트교와 잉글랜드의 프로테스탄트교는 힘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적중하였습니다. 1560년 7월8일, 에딘버러 조약으로 잉글랜드의 거대함대는 움직였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프랑스군대를 스코틀랜드에서 영구히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1560년 8월, 스코틀랜드 국회는 프로테스탄트교를 국교로 지정하여 자신의 스승을 화형시켰던 모국에서 낙스는 스코틀랜드교회 신조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낙스의 "스코틀랜드 프로테스탄트의 신앙과 교리의 고백"은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탄생되기 까지 100년동안 사용되며 스코틀랜드의 영적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1561년 1월, 교회정치가 채택되어 장로교회의 조직은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낙스는 교회가 세속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구제할 대상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빈부의 차별에 따라 사람을 대우하는 것도 죄악이라고 하였습니다. 낙스는 모든 어린이들이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천명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낙스에 이어 멜빌 (Andrew Melville, 1545~1622)로 계승되었고 장로교와 프랑스의 유그노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5.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운동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게르만, 스위스, 스코틀랜드와 달리 근세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왕실을 중심으로 일어난 개혁운동은 교리와 신학이 아니라 정치와 교회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는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30~1384)였습니다. 위클리프는 최초로 영어성경을 완역했으며 교회의 세속적 재산에 대한 포기를 주장하고 카톨릭의 신앙과 의식에 대하여 체계적인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위클리프는 사후 뼈에 대한 화형식과 저서를 금지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방의 평민들에게는 그의 감화가 지속되었고 16세기초반까지도 영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헨리 8세가 즉위한 후 그는 루터의 개혁에 반대하였습니다. 1521년, 때마침 교황 레오의 요청이 있자 헨리8세는 루터의 저서를 금지하고, 본인이 직접 "7조의 예전의 엄수"라는 책을 출판하여 교황에게 헌정함으로써 교황으로 부터 "신앙의 옹호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와 인접국인 스코틀랜드는 적대관계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와 동맹관계를 맺고 잉글랜드는 스페인과 동맹을 맺으며 항상 대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왕 헨리 7세는 장자인 아더를 스페인의 공주 아라곤의 카자린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아더 왕자가 몇달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스페인의 왕실은 15세로 과부가 된 카자린을 위해서 둘째 아들인 헨리와 결혼시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형수와 시동생과의 결혼으로 비도덕적인 것이었지만 국가간의 문제로 인하여 재혼이 성사되었습니다.

본래 교회법은 근친의 결혼을 금하고 있었으나 교황과의 정치적 합의로 결혼은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기간 15년동안 사산아와 조산아를 출산하고 메리 한 사람만 생존하자 헨리 8는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로는 로마 교황에게 자신의 결혼이 불법이었음을 선언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헨리 8세는 교황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토마스 그랜머(Thomas Granmer) 등 유럽의 유명한 신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자신의 결혼이 불법이라는 해답을 듣고 1533년, 안 볼렌(Arne Boleyn)이라는 궁녀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에 교황은 궁녀 안볼렌과의 결혼은 불법무효이므로 안볼렌과 이혼하고 10일내에 카자린을 복귀시킬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파문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1534년, 헨리 8세는 이에 교황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교회 수장정"(Act of Supremacy)이라는 국왕지상권 의례와 법령을 공포하여 영국의 국왕은 지상에서 영국의 수장임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반대한 존 피셔 주교와 토

마스 모어 대법관은 참수라는 극형으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헨리 8세는 종교적 관심보다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지도자 토마스 그랜머는 왕을 움직여 종교개혁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헨리 8세는 오히려 전통적인 교리와 보수적 신앙을 신봉하며 6개조 신조(Six Articles)를 제정하였습니다 에드워드 10세가 즉위한 후 서메셋 공작의 섭정으로 종교개혁에 진전을 보였습니다 성찬식에서 평신도들에게 떡과 포도주가 주어졌습니다 성직자들의 결혼이 허용되었고 여러가지 우상들이 철폐되었습니다 공동기도서를 만들어 잉글랜드어로 된 예배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교는 왕성하여 졌고, 헨리 8세가 만든 6개신조는 폐지되었으며 1552년, 토마스 그랜머가 기초한 42개 신조가 제정되었습니다 성례와 성찬은 칼빈의 신학을 준수하였고 프로테스탄트교의 종교개혁적 신앙교리를 신조에 담았습니다 서메셋 공작의 뒤를 이은 노섬버랜드 공작은 극단적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랜머는 대륙의 개혁자 마틴 부셔(Martin Bucer)를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로 초빙하였습니다

1552년, 에드워드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한 후로 캐더린의 소생인 메리가 왕위에 즉위하였습니다 메리여왕은 자신의 생모의 결혼이 불법한 것이라고 결정한 날로부터 서자로 취급되어 즉위까지 20여년동안 프로테스탄트교와 원한을 가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메리여왕은 스페인 왕 필립 2세와 결혼하여 잉글랜드 인들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피에 굶주린 메리"라는 별명대로 프로테스탄트교를 학살하였습니다 메리 여왕은 프로테스탄트교 관리들을 모두 축출하고 로마 카톨릭 주교들을 복직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의 지도자인 그랜머는 화형을 하고 수많은 프로테스탄트교인을 투옥하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1554년 12월, 메리여왕 부부는 교황에게 사죄하고 잉글랜드 국회는 로마 교회로 복귀하는 서약을 하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교의 신조와 법률은 모두 폐지되고 이단정죄법은 부활하여 프로테스탄트교 288명의 지도자와 감독들은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메리 여왕은 민심을 잃고 후사를 얻지 못하는가 하면 남편은 스페인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1558년 11월,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즉위하였습니다 화형과 처형으로 신앙의 불씨마저 영원히 꺼져버린 것 같은 참혹한 잉글랜드에서 프로테스탄트는 다시 살아 움직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세계최고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프로테스탄트는 국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1559년, 교회수장령(The Act of Supremacy)을 가결하고 국회는 통일령(The Act Uniformity)을 가결하였습니다 1563년, 42개 신조는 39개 신조(The Thirty nine Articles)로 확정되었습니다

교회수장령, 통일령, 기도서(The Common Prayer Book), 39개신조 및 영국 국교회의 규모와 체제는 1563년 이래 현재까지 일부를 변경하거나 수정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잉글랜드 교회가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륙에서 돌아온 800여명의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퓨리탄(Puritans)이라는 것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지체하거나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만한 힘은 더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1588년 7월, 스페인은 149척의 전투함과 8,000명의 수병, 20,000의 전사, 2,500문의 대포를 실은 대 함대 아르마다(Armada)를 이끌고 잉글랜드를 포위하였습니다. 불과 80여척 밖에 안되는 대국의 잉글랜드함대는 드레키 장군의 지휘아래 스페인함대와 전쟁을 하였고 결과는 잉글랜드의 대승이었습니다. 스페인의 권세와 야욕은 일시에 무너졌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뿌렸던 잉글랜드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어 나갔습니다.